第284回國會 (定期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豫算案·決算·基金審査小委員會)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9年11月18日(水)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2010년도 예산안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나.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審査된案件

1. 2010년도 예산안 ····· 1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나.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11시23분 개의)

○소위원장 문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소위원회 위원사·보임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한나라당 정진석 위원과 구상찬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정의화 위원과 이범관 위원께서 보임되셨습니다.

함께 소위 활동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소위에서 심사할 안건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그리고 민주평통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난 후 이어서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민주평통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증액 또는 삭감 의견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한 항목씩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통하여 증액, 삭감 또는 조정해야 할 사항을 하나씩 정리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나.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11시25분)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통상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임재홍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외교통상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국제교류기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된 예산안심사소위 자료를 보면서 감액 또는 조정해야 할 사항을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 측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난 16일 월요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을 정리한 자료가 소위심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경우 감액 11건, 증액 13건, 제도개선 14건의 의견이 제기되었고 국제교류기금과 관련해서 감액 3건, 제도개선 2건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항목별로 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액 11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 순방입니다.

동 예산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해외순방을 위한 것으로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도에 비해서 20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학진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통해 동 사업 내용 중 특수활동비는 청와대 집행예산으로 대통령실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정부 측.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해외순방 행사라든가 외빈접대 행사 등 정상외교의 경우에는 외교부가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조정·기획하고 준비단계에서부터 모든 행사에 이르는 과정을 중심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의 측면에서 외교부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 8억 6000만 원이 편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삭감해서 수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지금 이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청와대가 쓰는 거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쓰는 데다가 예산을 반영을 해야지 왜 외교부에다가 해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그 모든 활동을 저희 외교부에서 종합적으로 수집을 해서 경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성과 집행을……

○소위원장 문학진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지. 실제로 집행하는 부처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게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청와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와대 쪽에서도 일단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중심 부처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청와대 의견입니다.

○이범관 위원 정상회의 참가 관련 경비 이게 그러면 여태까지는 청와대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신낙균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속 국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계속 시정하지 않고 이렇게 올린 게 문제라는 거지요.

대통령과 총리가 해외순방 시에 쓰는 예산을 외교부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임 실장, 그러니까 지금 우

리가 지적을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예산 8억 6000만 원을 청와대가 집행을 하는 돈이다 이거야. 청와대가 집행하는 돈이면 청와대 예산으로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게 실무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이거지.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첫째로 특수활동비가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예산이라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편성하는 것이 옳은데요, 이게 정상회의의 일부분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상회의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외교부 예산에서 편성하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청와대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외교부 예산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보라 이거예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데 일단은……

○소위원장 문학진 고려하세요. '고려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고려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부처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하자 이거지요. 뭐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다른 위원님은?

○신낙균 위원 대통령·총리 해외순방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고 국가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이범관 위원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야.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니까 청와대 예산으로 우리가 잡아넣으면 되지 그것을 왜 복잡하게 해.

○신낙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청와대나 총리실이 못 잡는지 납득하기 어렵지요. 그 말씀이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지.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상회의 자체를 전부 준비하고 예산 편성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곳이 외교부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외교부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말씀이고요.

○신낙균 위원 그러면 청와대하고 총리실에는 이 해외순방에 대해서 예산항목이 전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 항목을 만들어서 청와대 예산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아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협의를 했는데 예산항목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문학진 그게 왜 쉽지 않지요? 엉뚱한 데가 쓰겠다는 게 아니라 정상외교하는데 쓰겠다고 하는데 청와대 정상외교 예산항목으로 잡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그 항목 하나만 별개로 만들기보다는 외교부 예산이 일단 잡히니까 외교부 예산 속에 다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이춘식 위원 정상외교에 관한 예산은 외무부에서 통틀어 하니까 청와대에서 넣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별도로 빼내기가 조금……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런데 신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매년 지적돼 온 것이지요?

○신낙균 위원 예,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시정하겠다고 그러고 시정이 안 돼.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국회에서 그렇게 매년 지적이 되면 그리고 시정하겠다고 그런 것으로 나도 기억을 하는데 시정이 돼야 될 것 아니야. 국회에서 떠들다 말고 떠들다 말고 이게 뭐야.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적에 다시 한번 청와대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작년에도 신 차관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이범관 위원 그런데 정상회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순방까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얘기를 좀 알아듣게 해야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정상외교, 대통령만 대외 외교관계라면 거기로 가는 게 확실한데 총리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여러 부처가 같이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통

괄적으로 외교부에서 하는 것 아니야?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말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대통령 예산만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지. 왜 여기다 갖다 넣어?

총리도 가고 또 다른 사람들 특사도 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 것을 잘 얘기를 해. 종합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데가 외교부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안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야. 대답하는 게 시원찮아.

○신낙균 위원 2006년부터 이게 계속 지적사항이에요.

○이범관 위원 글쎄, 그 얘기는 나올 만 하네요.

○신낙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는 매번 안 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불요불급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한데……

○이범관 위원 이래서 할 수밖에 없어서 한다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해야지 자꾸 미루면서……

○소위원장 문학진 설명도 시원찮고 그래서 올해 이것을 차제에 한번 바로잡자 이거지요.

○이범관 위원 그러면 지금 바뀔 수가 있어요?

○소위원장 문학진 바꿀 수 있지요.

○이범관 위원 일단 해 주고 내년에 가서 혼 좀 냅시다. 진짜 이것을 해야 될 거면……

○소위원장 문학진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지금 똑같다고.

○이범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총리도 가고 특사도 가고 특별한 임무를 띠는 외교사절도 가고 이런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문학진 이 위원님, 그게 아니라 8억 6000만 원 중에 거의 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쓰는 거야. 맞지요?

청와대 경호실에서 8억 6000만 원 거의 다 쓰는 것을 왜 외교부에서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경호실을 주느냐고, 청와대 경호실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거기서 갖다 쓰면 되는 거지 청와대 경호실 경호하는 데가 외교부요, 뭐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일단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예산집행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맞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외교부에서 경호처에서 쓴 예산을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편성도 외교부 예산에다 편성을 하고 집행도……

○소위원장 문학진 그런데 임 실장 설명이 말이에요, 아까는 대통령 정상외교 그다음에 총리, 또 이범관 위원님이 특사 얘기하니까 거기 이 8억 6000이 그런 데 다 두루 쓰인다고 아까 얘기를 했다가 경호실에서 거의 다 쓰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그렇다 그런 것 아니에요. 설명이 말이야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납득이 되느냐고요.

청와대 경호실에서 8억 6000 거의 다 쓰는 것을 왜 외교부가 그것을 떠맡아 가지고 하느냐 이거지. 청와대 경호실에서 쓰는 예산은 청와대 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하자 이거지요. 청와대로 이거는 통 치자 이거야, 토스해 주자 이거야.

○이춘식 위원 그런데 이게 경호실에서 대통령 수행해서 외국 가서 숙식비 같은 것으로 쓰면 그것은 외교활동비가 맞지요. 이게 대통령님의 판공비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수행원들 다 여기서 준단 말이야, 그런데 경호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범관 위원 외통부에서 답변하는 게 시원찮은 것 보면, 답변하는 게 시원찮아. 나도 잘 납득이 안 가요. 어물어물하게 답변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춘식 위원 경호실도 수행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니까 이춘식 위원님 얘기대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청와대 경호실 예산으로 잡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나요?

○이춘식 위원 경호실에서 해외 순방하는 예산은 없겠지, 국내 활동만 있겠지.

○신낙균 위원 그러니까 잡아야지요. 당연히 잡아야지요. 정상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소위원장 문학진 아니, 그것을 잡으면 되지.

이게 무슨 도둑질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춘식 위원 정상회의가 몇 번 있는지 이런 걸 경호실에서 가늠할 수 없고……

○이범관 위원 아니, 이 8억 6000만 원이 전부 경호실에서 쓴 거예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니까 아까 거짓말했다 말이야.

○이범관 위원 총리 순방은 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신낙균 위원 거기도 경호가 있으니까……

○이춘식 위원 총리도 경호가 있겠지……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이범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정상회의 속에는 대통령 외교 행위도 있지만 총리 외교 행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정상회의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정상회의로 잡혀 있는 예산은 114억인데 이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8억 6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이범관 위원 나머지는 다른 것도 들어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실 예산에 다만 다 넣어서 될 일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면 총리 순방은 총리실 예산으로 넣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특사 파견하는 그런 경우 뭐 특사파견 예상 예산 이렇게 해서 따로 다 나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특사파견 예산은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것은 또 따로예요.

○이춘식 위원 특사는 특사대로……

○이범관 위원 아까 물어보니까 또 여기 들어가 있다고……

○소위원장 문학진 아니, 그러니까 이 8억 6000 청와대 경호실에서 거의 100% 다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이범관 위원 나머지 있잖아요.

○소위원장 문학진 또 무슨 총리 순방, 대통령 특사 이것은 지금 이범관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어물쩡하게 대답을 했다가 그거 경호실 것 아니냐 그러니까 또……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나도 잘 납득이 안 가요, 나도 납득이 안 간다고요.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이범관 위원 잘 납득이 안 가, 말을 확실히 안 하니까 나도……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와대에서……

○이춘식 위원 경호실 숙식비 같으면 외교순방 하는 행사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지, 외교부 수행원들도 다 여기서 할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협의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의 입장은, 특수활동비 한 항목만 이관하는 것은 좀 타당치 않고 예를 들면 청와대의 경호실이라든가 비서실에서 쓰는 모든 경비를 같이 일괄적으로 이관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한 항목만 이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신낙균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관이 당연한가……

○소위원장 문학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이범관 위원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지 좀 갖고 와 보세요. 작년에 뭐라고 답변했는지……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작년에 부대의견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우리 소위원회 회의록에 나올 것 아니에요?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봐.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런데 작년에는 부대의견에 채택이 안 됐고요.

○이범관 위원 아니,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돼 가지고 뭐라고 외통부에서 답변했어요? 금년에 시정하겠다 그랬으면 시정할 것이고……

○이춘식 위원 작년에 지적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소위원장 문학진 작년에 이거 지적 안 됐어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안 됐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신낙균 위원 2006년에서 2008년까지, 2006년

에서 2008년.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전에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이범관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일단 이 특수활동비가 과거에 청와대 쪽에 한번 편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외교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온 것인데 재정회계 측면에서 볼 때는 쓰는 쪽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지적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신낙균 위원 예, 제도개선 해야 돼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왜냐하면 저희가 삭감한다 해서 이 돈을 못 쓰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문학진 자, 그러면 그럽시다.

제도개선으로 대폭 양보합니다.

○이범관 위원 아유, 큰 양보 하셨는데요.

○이춘식 위원 출발이 좋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제도개선으로 정리합시다.

아, 이거 또 당에 가서 욕먹겠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5쪽의 두 번째 항목 글로벌 인적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맞는 성숙한 세계 국가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우리 외교의 토대가 될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적 네트워킹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10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외 명예영사 초청사업과 국제기구, 국제법, 안보전문가 초청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송영선 위원, 박주선·진영·신낙균·이미경·문학진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재단의 인사교류사업과의 중복성의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정부 측.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글로벌 인적 인프라 구축사업은 저희가 맞춤형 인사초청을 통해서 광범위하고 중층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학계나 문화계, 언론계, 청소년 등 그 대상 층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로벌 인적 인프라 구축사업은 그와 같은 대상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외교 목적에 맞는 대상으로 한정을 해서 그 차별성을 가지고 초청사업으로 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자, 위원님들.

○신낙균 위원 저는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불편한 상황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선 이것을 문화외교국사업으로 넣은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춘식 위원 일부는 제도개선으로 됐고 일부는……

○신낙균 위원 그래도 국제교류재단 인사교류사업에 포함될 사안이 아닌가, 아니면 지역국이나 조약국 사업이 되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선 문화외교국의 사업으로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신규를 해 놓고 문화교류사업 예산은 삭감됐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뜩이나 연약한 문화외교국 사업을 또 삭감하고 그리고 문화외교한다고 문화외교를 큰 지향 방향에다가 포함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외교부 사업추진 방향하고 안 맞는다 이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이 사업의 대상이 지역국이라든가 국제기구국, 재외동포영사국 등 모든 국이 망라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어느 한 곳에다 넣기가 뭐 하기 때문에 문화외교국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외교국이 이 예산 때문에 예산이 준 것이 아니고요, 문화외교국 예산은 내년도에 많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교류사업 실질적으로 수치로 나온 게 줄었는데 어떻게 증액이 됐어요? 예산편성에서 보면 줄었는데. 6억을 넣어서 증액이 됐지 그 외의 것은 쌍방향 문화교류 이런 것 다 줄었는데요?

그거 어디 나올 거예요. 이따 증액 사항에 나올 것 같아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문화외교국 예산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문화외교국 예산은 2009년도에는 10억 4400만 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15

억 4800만 원이 됐습니다.

○신낙균 위원 거기서 6억을 빼면, 신규 이 6억을 빼면?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여기서 6억을 빼면 한 1억 정도가 빠지는 게 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쌍방향 문화교류 거기에 5300만 원이 빠졌어요, 전체 토털 액수가 5억밖에 안 되는데. 아니, 2009년도가 5억이고 2010년도에는 4억 7000인데요, 거기서 5300이나 빠졌어요. 토털 액수가 적은 데서 5300이 빠진 건데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빠진 부분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할 적에 신규사업이 들어갈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늘려주는 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희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낙균 위원 바로 그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화외교 중요하다고 하면서 문화외교에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신규사업을 6억을 배치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액수를 감액한 것 그게 문제라고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아니, 그런데 이게 교류재단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교류재단사업하고는 대상이 완전히……

○이범관 위원 그렇네요, 신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소관 부처도 이게 적절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문학진 교류재단 인사교류사업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지금 말씀하셨던데로요, 교류재단에는 직접 초청사업이 학계라든가 문화계, 언론, 청소년 등인데요. 이것은 주로 국제기구 인사라든가, 우리 현안하고 관련돼 있는 국제기구 인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명예총영사라든가 그 대상이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외교통상부 지역국에서 하고 있는 교류협력강화사업 거기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걸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지역국에 잡혀 있는 교류협력사업은 각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다릅니다.

○이춘식 위원 그것은 문화국 예산이니까 문화인사하는 것 아니에요?

○신낙균 위원 전혀 별개예요. 문화보다는 더 정치적인 의미예요.

○이춘식 위원 문화국 예산인데 문화인사를 주로 해야지……

○신낙균 위원 그래서 이것을 넣으면서 문화국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어느 지역국 하나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외교국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춘식 위원 문화외교 강화 차원에서 피에르 가르뎅이니 이런 문화인사를 좀 많이 초청을 하세요.

○신낙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삭감했어요.

○이춘식 위원 그것을 삭감하고?

○신낙균 위원 예, 이것이 들어가니까 토털 액수가 소계가 늘어나니까 삭감을 했다고요.

○이춘식 위원 외국 문화계 인사들하고 교류하는 것을 넣으면……

○신낙균 위원 그러니까 외교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이것은 지금 설명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제가 국회적 시각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말해 봐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인적 인프라 구축사업을 가지고 예산 당국하고 외교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히 프로그램을 하나 신설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문화외교국에다 이것을 맡길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생뚱맞은 쪽에 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새로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

고요.

그래서 차라리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쌍방향 문화교류증진사업에서 5300만 원 삭감된 부분을 뒷부분에 증액 부분에서 증액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 글로벌 인적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보고 내년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으로서 독립시킬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춘식 위원 외교부에서 어렵게 기재부 설득해서 따낸 것인데 조금……

○소위원장 문학진 기재부 설득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신낙균 위원 신규사업인데 힘들겠지요.

○이범관 위원 내가 봐도 말이지요, 외교안보연구원이나 아까 국제교류재단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중복되는지 이게 필요한지……

○이춘식 위원 모자라니까 이렇게 본 예산에……

○이범관 위원 거기 더 주면 되지요.

○이춘식 위원 거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예산에 이것을 넣은 것 같은데……

거기 돈이 없을 거야.

○이범관 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나도 기획관리실장 했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하기 시작하면 안 되지. 정당하게 해서 거기를 늘려 줘야지, 거기 예산을 늘려 줘야지.

○이춘식 위원 교류재단은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별도 기금으로……

○이범관 위원 기금으로 넣어 주던지……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지금 6억 책정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 반 정도 일단 해보고, 한 3억 정도 해보고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했는지 보고를 받아보고 그리고 늘릴 필요가 있으면 내년에 늘려 주고 아니면 늘릴 필요가 없고 매우 중복되고 그러면 다 없애 버리고, 어떠세요?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요.

○신낙균 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이게 지난번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까 이범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상자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고요.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나라에서 한번 초청을 해서 그 나라에 방문을 해서 한 일주이고 보름이고 있으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우니까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 나라를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꼭 문화계 인사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언론계 인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안하고 관련돼 있는 국제기구의 인사라든가 또는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명예총영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를 알게끔 해서 그 사람들을 친한 인사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저희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범관 위원 아니, 지금 외통부에서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신낙균 위원님 말씀이나 위원장님 말씀이나 그걸 맡은 소관 부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찢어발겨 가지고 여기 모자라니까 저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국제교류재단 예산을 늘려주든지 외교안보연구원을 좀 늘려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지금 이춘식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그게 모자라면 효율적으로 거기를 좀 늘려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것을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지, 그 이외에 특별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면 필요한 거고 안 그러면 다 깎아 가지고 그리 줘 버려야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여튼 사업 자체, 그 대상이 다르고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을……

○이범관 위원 다른지 한번 그걸 갖고 와 보세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적으로 한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다 되어 있고, 또 국제기구 쪽도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어느 한 곳에다 집어넣기 어려웠기 때문에 문화외교국에다가 기술적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문화외교국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어색하다면 어색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식 위원 외교부에서 모처럼 좋은 일 한다는데 한번 믿어 보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나는 외교부 도와주고 싶지요. 외교부 예산 너무 적고 총체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이게 중복되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과

연 얼마나 타당한 건지 이것을 우선 시작할 때 반 정도로 시작을 해 보고 내년에 가서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다 그러면 확 늘릴 수도 있고……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위원장님, 저희가 12억을 요청했는데 재경부에서 반을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6억을 그냥……

○이범관 위원 여기서도 깎아야지 여기서는 못 깎나?

○홍정욱 위원 지금 유럽 지역 교류협력 강화도 깎였지요? 이거 증액해야 되지요?

한 5000만 원 깎였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유럽 지역이요?

○홍정욱 위원 예.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홍정욱 위원 그리고 아중동도 한 2000만 원 깎였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홍정욱 위원 그리고 아까 교류재단 5000만 원 깎였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홍정욱 위원 그거 다 하면 한 1억 3000 되잖아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홍정욱 위원 그 액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삭감하시고, 거기는 그거 채우고……

○이범관 위원 좋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삭감을 해서 그 액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들어가면 좋은데요. 지금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홍정욱 위원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그런 효과 면에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이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말씀이 맞아요. 지금 기존 예산 올리시기 힘드니까 이거 새로운 항목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외교부 예산에. 그것은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불투명성을 초래하고 예산 파악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금년에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통합할 수 있으면 모든 사업을 다 통합하도록 그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자, 일단 3억 갖고 시작합시다. 글로벌 인적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3억으로 해 보고……

○이춘식 위원 아니, 12억을 6억으로 깎았는데 또 3억을 깎으면 아무것도 없지.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저희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인적…… 왜냐하면 중요한 분들 초청해 가지고 친한인사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나중에, 이 예산을 가지고 초청받은 사람들의 소감기라든가가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초청하면야 물론 와서 다들 좋아하지.

○이범관 위원 지금 우리가 명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체계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거니까 일단 3억……

○소위원장 문학진 신낙균 위원님이 결정하시지요.

우리 신낙균 위원님 결정대로 따라가도록 하시지요. 어떠세요?

○이범관 위원 말씀하시는 걸 들어 봐야지 어떻게……

(웃음)

○이춘식 위원 평소에 외교부 예산 적다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모처럼 기재부에서 따온 걸……

○홍정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대조건으로 올해 진행 상황 보고 내년에는 이 별도 항목 두지 않고 통합예산으로 간다, 그 약속을 하면 허용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범관 위원 그러면 홍정욱 위원을 따릅시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런데 약속을 하면 잘 안 지켜지더라고. 그게 문제야.

○홍정욱 위원 제가 내년에 외통위에 남아서 챙기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다음에 또 소위원장을 하세요.

○소위원장 문학진 나, 내년에 소위원장 때려치울 거야.

(웃음)

○신낙균 위원 그런데 제가 더 문제시 했던 것은 이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문화외교국의 전체 예산이 올라가니까 진짜 필요한 걸 깎아버린 거예요. 사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범관 위원 그 말씀이 맞아요.

○신낙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증액할 수 있으면……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러면 2번 항목도 제도개선으로 해서 제가 문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예, 제도개선으로 하고.

○소위원장 문학진 오케이.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세 번째 항목,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선정 사업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외교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고, 외교적 전통을 발굴하여 현대적 시사점을 도출해서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넓히기 위한 대국민 접촉활동을 전개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분기당 한 사람의 인물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선정인물을 홍보하는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박주선 위원, 신낙균 위원, 이미경 위원께서 사업에 시급성이 없고 문화재청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화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선정 사업을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것은 21세기의 저희,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서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외교를 보는 시각을 좀 고쳐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선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대외관계사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역사적 인물들을 선정해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우리 외교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또 우리 외교가 우리나라의 생존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같이 외교가 중요한 나라에서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들을 계속 선정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낙균 위원 저는 이것은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지금 우리 외교부의 이 작은 예산 규모에서 이것을 외교부가 특별히 할 그런 시점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있으면 하게 하고 그리고 진짜 외교가 중요하면 우리 외교관들 교육 훈련하는 비용에다가, 예산에다 쓰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국정감사 때 지역에 가 보면 외교인력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비용에 하면 몰라도 외교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인물선정 사업에 쓴다,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외교부가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각 부처마다 뭐 복지에 훌륭한 인물을 선정해서 하고…… 각 부마다 이런 게 경쟁적으로 나타나면 그런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홍정욱 위원 다른 부처에 스스로 자기 부처의 인물들을 고르는 사례가 있나요?

○신낙균 위원 문화부만 국가 전체로……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외교에 관한 인물은 우리 외교부에만 속한 인물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는 인물들을 저희가 선정하는 거고요.

○신낙균 위원 바로 그걸 문화부가 하고 있잖아요.

○홍정욱 위원 예를 들면 어떠한 사례를 의미하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는 서희를 첫 번째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희학술대회도 개최를 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나라이고 또 4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이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까 우리 신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외교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늘리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정욱 위원 문화부에서는 어떤 인물들을 선정하나요?

○신낙균 위원 거기는 국가 차원에서 뭐 올해의 인물, 그래서 학문적으로 문화, 문화인물 이거 다 총괄해서……

○소위원장 문학진 매달 하지 않아요, 문화부에서?

○신낙균 위원 매달 하고 1년으로도, 그렇게 해서 1년으로 하고……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니까 문화부에서 할 때 외교 분야를 제쳐 놓는 건 아니잖아요?

○신낙균 위원 아니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그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신낙균 위원 국가 차원에서 전체로 보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이달의 문화인물 사업도 종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건 안 해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신낙균 위원 그렇게 하던 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인물을 가지고, 훌륭한 분에 대해서 세미나 하고 그분의 외교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외교적 인물, 우리 역사에서 이걸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그러니까 저희 외교역량의 롤모델(role model)로서, 우리가 그분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각 외교관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키워서 우리 외교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자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는 주도적으로 외교부만이라도 외교를 빛낸 인물을 자꾸 기려서 국민들의……

○신낙균 위원 그런데 외교역량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게 적절하지 않다,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외교역량을 강화할 방법은 다른 데에도 있고요.

○홍정욱 위원 취지는 저도 공감하는데, 우리 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외교부가 하는 일로서는 중요성이, 시급성이……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니까 조금 우스워 보이는 게 아까 우리 신낙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교부는 역사상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그러고 또 다른 부는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은 역사상 훌륭한 경찰을 선정하겠다고 하고 또 검찰청은 검사 중에서 훌륭한 사람을 하겠다고 하고 이런 웃기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상되네. 그래서 썩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외교는 국가의 모든 활동의 총체적인 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한 부처, 한 부처에서의 인물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낙균 위원 각 부처가 다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부처마다 국가의 총체적인 그 분야의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만 그런 건 아닌데, 외교역량 강화는 해야지요. 그런데 정말 교육이라든지 인적자원 확충으로 할 일이지…… 그리고 이런 아이템 하나가 신규로 들어오면 이것은 진짜 다른 부처하고 그런 경쟁 관계도 유발해요,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선정 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각 부처마다 다 그 분야를 빛낸 인물들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이렇게 빛낸 사람들의 그런 것을 무시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이런 항목을 설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처 기관에서도, 문화교류재단인가 이런 데서도 하나의 세미나 주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위원장님, 지난주에 저희가 '외교를 빛낸 인물'해서 서희에 대한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런 거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그런 걸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것을 예산항목에까지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정책기획국장한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홍정욱 위원 위원장님, 지금 항목마다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신속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럽시다.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정책기획국장 이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여태까지 우리 국민들의 외교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 우리 자신들이 주로 서양외교라든가 또는 서양의 외교이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외교 역사를 좀 올바르게 알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은 배우자 이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교부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국민 접촉활동, 소통활동을 활발히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1월 9일날 서희를 주제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번 했었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당시에 언론에 커버됐던 내용들인데요.

○신낙균 위원 예, 봤어요.

○외교통상부정책기획국장 이윤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이런 사업을 외교부가 왜 진작 하지 않았느냐, 신규사업으로써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다' 저희가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상당히 필요하고 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게 전체를 아울러서 정부에서, 예를 들면 문화부라든지 이런 데서 전 분야에 걸친 스크리닝(screening)을 해서 인물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어울리지 외교부에서 이걸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썩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춘식 위원 이걸 역사적인 인물로 하면, 다른 데서도 역사적인 인물로 하면 최근 100년간 사람은 뺀다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최근 사람을 넣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역사적인 인물로 한다면 서희 장군 이런 분들 같으면 괜찮은데, 그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외교통상부정책기획국장 이윤 가능하면 옛날 고대 쪽, 고대나 근대로 이렇게 하고요. 어떤 문제점이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선정위원회는 학계라든가 연구기관 또 언론계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신낙균 위원 이거 하다가 진짜 외교역량 약화시키겠습니다. 그 사업에 집중하느니 외교 자체에다 더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외교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항목을 세워서.

○소위원장 문학진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그런 것 같고, 이것은 한다면 총괄적으로 어디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국가 전체의 여러 분야를 놓고 죽 해서 할 문제지 외교부가 따로, 또 어디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것은 좀 적절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앉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은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이 다수인 것 같고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춘식 위원님.

○이춘식 위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신낙균 위원 다른 데 증액시켜요.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세요.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전액보다는 반 정도는 줘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문학진 반 해 봐야 그것 얼마 돼?

○신낙균 위원 액수가 얼마 안 돼요.

○소위원장 문학진 전액 삭감.

됐어요, 됐어.

○이춘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한 10년, 5년 텀(term)을 갖고……

○신낙균 위원 지금부터 매년 하겠다고……

○외교통상부정책기획국장 이윤 저희가 당분간 매년 해 가지고요, 한 4~5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사람 정도……

○소위원장 문학진 우리들 생각은 뭐냐 하면 전 정부적 차원에서 문화부에 뭘 하나 두든지 해서 거기서 전 분야에 걸쳐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어떤 인물을 선정해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이렇게 외교부만 딱 떼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런 의견이에요.

○이춘식 위원 반절로 깎아 가지고 올려보고 시원찮으면 내년에 다 깎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소위원장 문학진 반이요? 지금 2억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반이면 1억 600만 원인가?

○이춘식 위원 예, 절반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홍 위원님은 이의 없습니까?

홍정욱 위원.

○홍정욱 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사업인데요, 절반으로 깎으면 연구 내용과 검토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이것을 보류하든지 하는 것이지 깎아서 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낙균 위원 참고로 소위 하실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비용이 얼마나……

○외교통상부정책기획국장 이윤 이번에는 약식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신낙균 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외교통상부정책기획국장 이윤 한 2000만 원가량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산을 줄이시게 되면 저희가 홍보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낙균 위원 내용이 좋으면 언론이 다 받아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다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항목으로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외교부 사업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빚낸 사람들을 연구하고 홍보하고 이것을 하십시오.

○홍정욱 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하십시오.

○소위원장 문학진 미안합니다.

앉으세요.

적절치 않다, 전액 삭감합시다.

넘어갑시다.

다음, 4번.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네 번째는 전자여권 제조 및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자여권 제조 관련 비용 및 여권 세입예산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2010년도 전자여권 예상 발급건수를 310만 건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전자여권 수수료 납부방식 개선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540만 건으로 산출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피건대 540만 건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고 310만 건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예산 당국이 일방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외교통상부가 LG CNS에다가 여권의 발급 추세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010년도 여권 발급건수를 약 419만 건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2010년도 여권 발급건수를 419만 건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배부해 드린 표와 같이 조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부분에 있어서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은 419만 건으로 계산하게 되면 312억 원이 증액이 되겠고, 전자여권 제조 및 개선 사업에 있어서 전자여권 제조 관련 비용과 전자여권 수수료 납부방식 개선은 193억 7600만 원이 증액되고 4억 2900만 원이 감액되는 그런 결과, 전체적으로는 세출이 189억 4700만 원이 증액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수치가 다른 그런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 의견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송영선 위원, 구상찬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대체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는 419만 건을 기준으로 해서 한 4억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신낙균 위원 일부 감액이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정이 되면 세입이 312억 원이 증액이 되고 세출은 189억 47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홍정욱 위원 전체 예산 액수의 틀에서는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안 들어오는데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러니까 2010년도 세입예산안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치를 바꿀 것 같으면 이게 세입 부분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이……

○홍정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100억 증액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100억 증액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전체가 달라지는데……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이렇게 되면……

○홍정욱 위원 여기서 100억 증액 대신에 96억 증액하라는 얘기예요, 4억 원은 감액하고?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아닙니다.

○홍정욱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달라지는데……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이것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100억 증액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289억 4700만 원이 증액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지적을 하신 것은 어떤 때는 310만 건이고 어떤 때는 540만 건이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신낙균 위원 거기에 맞는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신낙균 위원 없어요. 맞는 계산만 하시면……

○이춘식 위원 계산만 제대로 하면……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항목……

○소위원장 문학진 잠깐만, 잠깐만.

일들이 있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일단 마쳐야 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문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 심사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다음 항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 선정 사업' 2억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내년에 분기마다 아마 4명 정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범케이스로 1년에 2명이라도 진행할 수 있게 아까 제안하신 대로 반액만 삭감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아까 처음에 제가 반액하자고 그랬었던가요?

○홍정욱 위원 예, 그랬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좀 제시했는데 나중에 4명 대신에 2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액 삭감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항목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사업 중에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과 관련된 사업 내용입니다.

구상찬·진영·신낙균·이미경·문학진 위원님께서 사업 지체로 인한 불용액이 상당 규모가 발생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에서 관리가 좀 적절치 못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동아시아 지역의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우리 녹색산업의 기술력 홍보 및 회원국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과 관련된 추진 기본 전략이 금년 9월에 수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 집행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월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326억 원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를 금년 내에 끝내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연내에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신낙균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불용인데……

○한국국제협력단이사 장현식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OICA 이사입니다.

늦게 방향이 설정돼서 저희들이 2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리서치팀도 만들고 다음에 내년에는 부 정도로 승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 세 분하고 신입직원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든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위원님들.

○홍정욱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것은 시작한 사업으로서 차라리 서툴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불용되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KOICA 활동 확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춘식 위원 찬성입니다.

○신낙균 위원 실제로 집행 가능한 예산 규모만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떨는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 장현식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조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 맞춰서 MOU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할 수 있어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 장현식 예, 불용이 안 되고 이월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큰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 항목입니다.

역시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과 관련해서 아프간 재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8년 6월에 아프간 지원국회의에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아프간 추가원조를 서약한

것으로부터 출발한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정부의 아프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기존 PRT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은 파르완(Parwan) 지역의 의료지원이 되겠고 직업훈련이라든가 인력초청연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신낙균 이미경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 없이 PRT 확대와 경계병 파병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고백하건대 파병 관련 예산인 줄 알고 오인했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소위원장 문학진 그게 아닙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 장현식 아닙니다.

○홍정욱 위원 민간 재건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파병 관련 예산이면 다 깎아 버립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 장현식 그게 아닙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 7쪽의 일곱 번째 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박주선·정옥임·신낙균·이미경 위원께서 '북미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서도 미 의회 대상 컨설팅회사 고용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두 사업의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중복 예산을 삭감하고 업체 계약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북미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매년 한미동맹 강화 등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꾸준하게 해 왔던 사업입니다.

다만 FTA 체결 및 후속조치 사업은 FTA라고 하는 단일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 의회 내에 한미 FTA 인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미 의회 내에 사업을 실시하는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북미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컨설팅회사를 고용을 하되 상·하원, 외무위, 군사위 등 상임위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고 FTA 체결 및 후속조치는 컨설팅회사를 고용은 하되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민주당, 공화당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고용 목적상과 미 의회 내 사업실시 대상에서 차이가 있고 컨설팅회사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게 좀 중복이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지요?

○홍정욱 위원 왜 이것을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그러니까 기존의 북미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늘 한미동맹 강화라든가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회사를 고용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FTA 사업은 이번 FTA 체결 추진을 위해서 FTA만을 목적으로 해서……

○홍정욱 위원 기존에도 FTA 관련해서 로비스트 펌을 고용하고 있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기존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외교통상부FTA정책국장 이태호 기존에 한 회사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조그만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 6개월이 인준을 위한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홍정욱 위원 지금 스크라이브는 어디서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 스크라이브가 일반적인 로비이고 그러면 FTA 관련해서는?

○외교통상부FTA정책국장 이태호 예, 이 FTA 관련해서는 내년 초에 6개월간 집중적으로 대 의회……

○홍정욱 위원 기존에 나갔던 로비 예산은 어디서 나간 건가요?

○외교통상부FTA정책국장 이태호 그것도 이 회사 이 엘리먼트(element)는 옛날부터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홍정욱 위원 증액을 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FTA정책국장 이태호 예, 그런데 그전에는 조그만 회사 하나를 했었고 이번에 위원 88명 인준 촉구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접촉하는 과정에서 활용을 해 왔고요. 내년 초는 한미 FTA를 인준시키기 위한 기회의 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6개월간 집중적으로 이 회사의 도움을 받

아서 대 의회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외교통상부FTA정책국장 이태호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미동맹 관계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접촉 브리지를 놔줄 수 있는 회사 규모는 한 60만 불 정도가 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런데 한미 FTA는 우리가 수도 없이 하고 있는 얘기지만 미 의회 비준이 이렇게 하염없이 늘어지는 게, 이게 한국이 로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미국 국내 상황이 주된 요인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FTA정책국장 이태호 예, 그런 측면이……

○소위원장 문학진 그런 측면이 강하지요.

이번에 우리 한덕수 대사도 잠깐 만나고 왔는데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지요.

그래서 이게 좀 중복이 돼 있는 이런 점이 있고 조금 예산이 과다하다는 점이 있어 보이고 그러네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일단 중복되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중복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국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돼서 FTA 체결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는 좌우간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를 이해는 하겠는데요.

일단 오바마 대통령도 내년도 하반기의 중간선거 관련해서 상반기에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FTA 체결을 위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컨설팅회사를……

○소위원장 문학진 아니, 거꾸로지요.

중간선거가 내년 몇 월이에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10월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하반기 아닙니까? 중간선거가 내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를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요인이라고 우리는 보는 거지. 노조의 요구 뭐 이런 요구들 때문에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이번에 가서 주미대사도 만나 보니까 그런 점을 매우 걱정을 하고 있더만요.

○홍정욱 위원 제가 한 말씀 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미 FTA 전망이 매우 밝지 않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국내 정치의 국내 정세 때문이라는 부분도 아주 공감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와 별도로 우리 정부의 대 미 행정부, 의회 로비 비용은 아주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 이런 데 비해서 거의 로비 비용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게 그렇게 적은 거요?

○홍정욱 위원 예, 열악하고 특히 우리는 하원 쪽에 중점적으로 로비를 했는데 상원 쪽은 거의 로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항목 자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를 위한 로비지만 그와 같은 교류협력 강화가 다른 분야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조금 이 방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 만일 액수가 과다하다면 그 부분은 논의할 수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춘식 위원 한덕수 대사가, 이번에 가니까 전번에 비자 협정이 컨설팅회사 도움을 많이 받아서 상원에 이것을 한다고 우리한테 상원에 고정적인 회사를 하나 하면 좋겠다, 그 비용 같은데……

○홍정욱 위원 상원 로비가 없어요.

○이춘식 위원 상원을 한번, 우리는 로비를 너무 안 하니까 이야기 자체가 안 되고 역시 돈을 좀 줘야 그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알아보고 이렇게……

○홍정욱 위원 의원님들 미국 가시면 하원의원만 만나시지 상원의원 잘 못 만나시잖아요.

○이춘식 위원 상원의원 없어.

○소위원장 문학진 1년 전에 리처드 누구 한번 만났어요.

○홍정욱 위원 간신히 만난 거예요.

○소위원장 문학진 아, 나는 그 과정이야 모르지, 만나기로 했다니까 가서 만난거지 뭐……

○홍정욱 위원 로비를 더 하셔야 돼요.

○이춘식 위원 이 회사가 하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신낙균 위원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삭감하고 싶었던 게 이게 중복이 되니까 미 의회 로비에 사용될 그 액수는 삭감해도 되지 않나 이

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로비액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족하다니까 홍 위원님 믿고……

○소위원장 문학진 좋습니다.

갑시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예, 절 믿고 이거 해 주십시오.

○이춘식 위원 문 위원 가면 상원의원 좀 만나게 부탁합니다.

○신낙균 위원 이다음에 가서 상원……

○소위원장 문학진 됐어요. 나는 에드워드 케네디 만나려고 했는데 돌아가셔 가지고, 됐어요.

자, 갑시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여덟 번째 항목 글로벌코리아 미래전략기반 네트워크 강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글로벌 거버넌스 중심국가 진입을 위한 미래 외교전략 수립 및 협력 외교네트워크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 및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박선영 위원, 구상찬 위원, 박주선 위원, 진영 위원, 신낙균 위원, 권영세 위원, 문학진 위원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기존 외교안보연구원사업과……

○소위원장 문학진 총체적 반대구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유사성 등 신규사업으로서의 추진 필요성이 적다라는 지적과 함께 기존 사업과 유사한 주요 연구기관 방문 네트워크 강화사업 1억 800만 원, 주요 인사 초청 국제회의 개최사업 1억 8700만 원, 연구개발비 3억 원 등 총 5억 95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박주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외교안보연구원 연구활동사업과 다른 점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교류 대상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존 사업은 주변 4강 위주의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이 신규사업은 4강 이외의 연구기관 및 국내기관과 공동 연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사업이고 연구 주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외교안보연구원 사업은 현안 중심의 단기 외교 과제임에 비해서 지금 신규사업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주로 한 중장기 외교 이슈에 대한 미래외교전략사업입니다.

다음에 연구 범위에 있어서도 기존의 외교안보연구원사업은 외교부 중심의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은 국정 전반에 대한 국가 전략적 차원의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사업은 차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게 미래기획위원회하고 공동사업한다고 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렇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런데 이것을 외교안보연구원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외교안보연구원의 기존 사업과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고,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신낙균 위원 그것보다는 핵심이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연구한 연구활동강화사업을 내실 있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않은가 그런 겁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것은 좀 삭감이 돼야 되겠네.

○신낙균 위원 이렇게 많은 위원님이 공감할 정도로 이것을……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연구원의 연구실장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연구실장 배긍찬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마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하고 저희 연구원이 마련한 사업인데 이것이 외교부 기존의 사업과 다른 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사업은 외교부 차원에서 단기 현안 위주의 사업이었지만 이것은 기존의 사업으로 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개척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 현안보다는 중장기 외교 전략과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것은 외교부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략 전반에 어떤 관심을 갖고 크게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기존의 예산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것은 기존의 예산은 4강 위주의 협력사업이 구체적인 기관까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의 사업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여기 삭감 규모를 보면 세 가지 부분의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특별히 앞에 주요연구기관 방문 네트워크하고 주요 인사 초청 국제회의 사업을 만약에 빼버린다면 이 사업 전체가 뭐랄까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말하자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삭감을 꼭 하셔야 된다면 연구용역개발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연구개발비 3억 원?

○외교통상부연구실장 배긍찬 예.

○신낙균 위원 그 외에 해외 연구기관과의 뭐 공동연구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총 9억 2000만 원 되는 것 그것……

○외교통상부연구실장 배긍찬 9억 2000이 아닌데.

○소위원장 문학진 9200이겠지요.

○신낙균 위원 합치면은……

○외교통상부연구실장 배긍찬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11억입니다.

○신낙균 위원 아,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는 얼마예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3억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연구개발비 3억 원은 없어도 된다?

○외교통상부연구실장 배긍찬 없어도 된다기보다는 그것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아, 글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3억은?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그게 연구용역입니다.

○외교통상부연구실장 배긍찬 그게 항목이 같은 겁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게 그겁니까? 연구개발비 이겁니까?

○외교통상부연구실장 배긍찬 예.

○소위원장 문학진 말을 좀 달리 쓴 거구나.

그러면 이 3억 정도는 탄력적으로 삭감이 돼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외교통상부연구실장 배긍찬 일단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빠지면 지장은 있지만 그러나 뭐 꼭 삭감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이 가장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삭감을 하면 실제로 이 사업 자체를 온전하게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이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리고 아까 주로 야당 위원들이 지적했다고 했는데 그거 안 그래요. 구상찬, 진영, 권영세 이 사람들 다 여당 위원들입니다.

○외교통상부연구실장 배긍찬 죄송합니다.

○신낙균 위원 외교 전문성 있는 분들인데, 홍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소위원장 문학진 연구실장이라고 그러셨나요?

○외교통상부연구실장 배긍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연구실장 의견을 받아들여서 연구개발비 3억 이거 삭감하는 걸로 일단 결론냅시다.

○신낙균 위원 많이 양보한 거예요.

○이춘식 위원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 아홉 번째 재외공관 주요 행사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외공관 주요 행사비 사업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재외공관의 주요 행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국격을 제고하고 현안과 관련해 방문한 국내 인사를 지원함으로써 출장 성과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일부 항목의 성격이 불명확하고 또 그다음에 예산 산출 근거 및 적절성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구상찬 위원, 진영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재외공관 주요 행사비 예산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행사비는 주로 국경일 리셉션, 공관장 이·부임 리셉션, 재외동포 교민대표초청간담회 그다음에 국무 출장 오는 대표단의 지원활동 등 재외공관에서 공개 가능한 사업을 과거의 외교활동비에서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된 이유로서는 국경일 행사 리셉션은 전 공관에서 참석자를 약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소요경비를 산정하였고 재외동포 교민대표 초청 간담회도 해당 공관에서

참석인원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연 3회 개최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무 출장 대표단 지원활동이라든가 한·러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난 5년 동안의 재외공관 주요 행사비의 편성 액수를 보았습니다. 지금 08년도에서는 76억, 09년도에서는 61억, 10년도에서는 11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외교활동비와 같이 보았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00억에서 190억 사이에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요 행사비 예산 산출을 함에 있어서 늘어나고 있는 외교 수요를 적절히 반영해서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자, 위원님들.

○이춘식 위원 그런데 저도 공관을 다녀보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국경일 행사를 못해서 절절 매고, 조금 뭐 있으면 그래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신낙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러 것만 특별히 편성한 이유가……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한·러 대화 사업을 편성하면서 기획재정부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역국 예산의 균형성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러 대화 사업을 금번에는 재외공관 주요 행사비에다가 편성할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행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래서 얼마입니까?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5억 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편제가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 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외교부의 뜻이 관철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 당국하고 분리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자, 갑시다.

다음.

○홍정욱 위원 그냥 이대로 가시는 거예요?

○소위원장 문학진 예, 갑시다.

돌아다녀 보니까 아까 이춘식 위원님 말마따나 돈들이 너무 딸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특사 파견이 되겠습니다.

특사 파견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각종 상대국의 정상 취임식 축하라든가 장례식이라든가 또는 국제기구 진출 관련 지지교섭 등을 위해서 현안 타결을 위해서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박주선·이미경 위원님께서 특사파견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정치인 특사를 대거 파견하여 동 예산을 과다 집행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3억이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박주선·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기반해서 예산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사파견이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사전에 모든 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 에너지자원 외교라든가 한·ASEAN 특별정상회의, G20회의 등 특사파견 수요가 급증해서 올해 11월까지 현재 총 19회 특사파견을 총 1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모든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위원장 문학진 금년에 19회?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19회 특사파견에 11억 원을 저희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적절한 수요를 생각해서 9억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춘식 위원 예산이 3억인데 11억을 어떻게 집행했어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다른 여비에서 저희가 다 충당을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끌어와 가지고……

○소위원장 문학진 여기 특사 나갔던 명단 좀 줘 보세요, 누구누구 나갔는지.

위원님들 다 드려요.

○이춘식 위원 11억을 9억으로 하면 2억을 깎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내년도에는 G20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저희가 삭감을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게 어디 그 나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런 게 다 여기 포함돼 있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그렇습니다. 의전적인 행사하고 또 저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당연히 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뭐 가래도 안 갑니다.

○신낙균 위원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소위원장 문학진 신낙균 위원님은 생각해 보실지 모르는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취임식에 오늘들 출국했던데 이진삼 의원이 끼어서 가대요? 그 양반 한나라당으로 당적 옮겼나?

○이춘식 위원 내년에 신 위원하고 문 위원 좀 특사로 넣어요.

○소위원장 문학진 노, 노!

신 위원님 어떠세요, 이 특사,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신낙균 위원 글쎄, 좀 애매한데 그런데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홍정욱 위원 어차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데 9억에서 조금 줄이시지요.

○신낙균 위원 3억에서 11억도 썼는데 뭐……

○홍정욱 위원 퍼센티지로 거의 300%가 오르는 건데 이것은 좀 줄이시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신청해서 쓰면 좋은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는 항상 저희가 특사 파견한 후에 재경부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외교부 자체 예산을 깎아먹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그냥 그대로 편성해 주시는 것이……

○홍정욱 위원 순전히 저희 당 의원님들만 가시는데 좀 저는……

○소위원장 문학진 아니, 배 아픈 건 하나도 없고.

(웃음)

○홍정욱 위원 그러면 그냥 지나가시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정치인 특사를 좀 남발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신낙균 위원 그것도 그렇고 증액률이 너무 커요.

○이춘식 위원 이게 11억이니까, 실제로 이게 3억이지만 집행이 11억이니까……

○신낙균 위원 올해는 특별한 것 같아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금년에는 G20 회의를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섭 과정을 거치면서 특사파견이 많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2억을 삭감해서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에는 G20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러나 특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도 어떤 여행은 열 분이 가셨고 어떤 부분은 여덟 분이 가셨고, 과연 그 정도 규모의 특사가 필요한가 하는 효율성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대통령께서 정하시는 것이지만 조금 과다하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누구누구 몇 명 가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정하겠어요, 그 밑에서 정하겠지? 그런데 조금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너무 많이 보낸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특사 예산은 저희가 쓰다가 만약 불용하게 되면 불용으로 남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상태에서는 외교부의 다른 예산을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사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어 있어야 외교부의 활동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런데 조금 과다하다는 지적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많이 올려 주면 계속 과다하게 갈 것 아네요? 조금 균형을 잡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제가 설명 올리면, 전용이 과다하거나 또는 예비비 사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당초 국회 예산심의 내용과 달리 집행을 했다 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2009년도도 11억의 특사파견 예산이 실제 소요됐거든요. 예산 소요는 있습니다. 11억 정도의 돈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결국 외교부는 예비비로 하거나 전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번에 한번 보시고, 또 아까 G20을 과거형으로 실장께서는 말씀하셨지만 G20을 11월까지 하려면 그 안에 특사가 많이 나갈 겁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9억 3000이니까 많은 것 같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홍정욱 위원은?

○홍정욱 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하십시오.

○이춘식 위원 이 문제는 통 크게……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갑시다. 다음에 우리가 집권할 텐데……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열한 번째 에너지·녹색성장 외교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외교통상행정지원 프로그램 내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에너지 협력 외교 사업의 연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에너지 자원 조사 및 정보 수집, 원전 수출기반 마련 사업,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 가운데 구상찬 위원님께서는, 에너지 협력외교 중에 공관장 에너지보좌관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예산은 28억이고요, 2009년도에는 10억이었던 예산인데 에너지보좌관의 부적절한 충원 및 부실 보고서 제출의 문제점과 함께 확실한 성과가 없는 에너지보좌관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수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고 현지에서 에너지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보좌관 자체를 고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너지보좌관에게 현재 한 2500불을 평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낮은 보수를 가지고는 현지에서 에너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예로 예멘의 경우에는 저희가 훌륭한 에너지보좌관을 교섭하던 와중에 다국적 에너지기구로부터 고액을 제시받고 채용에 실패한 경우가 있고,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뛰어난 정부 인맥으로 고위급과의 면담을 성사시킨다든가 대외비 정보 입수를 하는 등 활약이 많은 보좌관이 낮은 보수를 이유로 사임을 하였습니다. 브라질의 경우에도 유력인사들이 월 5000불에다가 임대료, 거주지원과 같은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어서 보통 7, 8000불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21명의 에너지보좌관을 28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에너지보좌관을 통해서 유망한 프로젝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수를 주면서 정말 좋은 에너지보좌관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주고 있는 액수보다는 적정한 액수로 상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에너지보좌관이 어디서 근무하는 보좌관이에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현지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현지 대사관에?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이춘식 위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아닙니다. 현지인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니까 주로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 자원이 많은 나라 이런 데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지금 저희가 에너지 거점 공관이라 그래 가지고 78개 공관을 지정했는데 그 가운데 21개의 공관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뒤에 증액 부분을 보시면, 권영세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확대해서 21개뿐만 아니라 78개 모두 다 고용해라 하는 증액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국 정책사례 발굴 및 분석 해 가지고 2억, 국제기구와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확산 공동 주도 2억, 에너지보좌관 초청 연수 사업 4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의 주요국 정책사례 발굴·분석 이런 것은 따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나요? 외교부의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녜요?

○홍정욱 위원 에너지보좌관 제도는 저도 국감

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 제도 시행에 문제가 많습니다. 실장님도 아시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홍정욱 위원 지금 비용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어떻게 잘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증액을 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검증의 토대가 되는데, 첫해 운영하시면서 에너지보좌관 중에서 에너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20%도 채 안 되잖아요?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사람들 아닙니까? 에너지의 '에' 자 들어가는 분야에 있었던 사람이 극소수인 형태로 첫해에 운영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실 상태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저희가 에너지라든가 자원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외교의 한 분야로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에너지나 자원이 우리 국가가 다급해져 가지고 에너지 전문 보조원을 채용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각 공관에서 에너지보좌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확한 사람을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인식과 정확한 사람을 고르지 못했는데 그것을 믿고 우리한테 대폭 증액을 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잘 운영하신 다음에 좀 보여주시고 증액을 하셔야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그런데 에너지 사업이라는 것이 1년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다년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홍정욱 위원 실수가 아니라 첫해에 운영을 제대로 못 했는데 어디서 또 증액을 해 달라는 그런 염치가 나옵니까?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아니, 첫해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운영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홍정욱 위원 그러면 한 해 더 똑같은 비용으로 운영 잘하세요. 그리고 내년에 증액해 달라고 하세요.

○신낙균 위원 에너지 외교 중요한 것 다 인정하고 에너지 전문가 필요한 것 다 인정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에' 자도 모르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그게……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정동영 위원 에너지보좌관 현황표 있어요? 그것 좀 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에너지보좌관이고 도대체 얼마씩이나 받는 거예요?

○홍정욱 위원 대부분 에너지와 관계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여기 국제경제국 심의관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국제경제심의관 김경수 사실 공관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실력 있는 에너지보좌관들을 뽑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보좌관들이 거기서 에너지에 대한 스파이 활동 비슷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빼오는 사람들인데 가령 그쪽에서 국영석유회사, 이라크 그런 데가 그렇습니다만 그런 데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붙잡기가 사실은 지난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 사실이고, 안 되는 데는 그런 쪽 사람들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78개 거점 공관 중에 최소한 32개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다 안 돼서 지금 한 20여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우디나 멕시코 또는 원전 진출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40개로 확대하려는 계획이고요.

아까 저희 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끌어오고 싶은데 저희가 못 끌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준을 높여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모색해서 확대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동영 위원 1인당 평균 급여가 얼마예요?

○외교통상부국제경제심의관 김경수 현재 2500불 수준입니다.

○정동영 위원 21명이 28억이면 1억이 넘는데?

○이춘식 위원 현재 10억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이것을 증액해서 28억이 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40명으로 해서 28억입니다. 현재는 21명이고요

○이춘식 위원 21명을 10억으로 한다고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아니, 40명을 28억으로 합니다.

○정동영 위원 21명의 평균 급여가 얼마냐고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9억 원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월 2500불이라며?

○정동영 위원 월 2500불이 아닌데?

○소위원장 문학진 지금 주고 있는 게 월 2500불이에요?

○외교통상부국제경제심의관 김경수 지금 20명에게 주고 있는 것을 평균을 내보면 한 2500~3000불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것으로 못 끌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예산을 올리자는 것이고요. 또 보수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을 때는 성과급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동영 위원 2500불이 아니잖아요, 21명이 10억이면?

○신낙균 위원 초청 연수 4억 또 녹색성장 패러다임 확산 공동 주도 2억, 정책사례 발굴 2억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 이거지, 8억 원이.

○소위원장 문학진 지금 정동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바로 와요? 자료 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지금 신낙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주요국 정책사례 발굴 및 분석에 2억 원, 국제기구와 녹색성장 패러다임 확산 공동 주도 2억, 에너지보좌관 초청 연수 4억 해서 합이 8억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99억 중에 8억 깎자는 거예요.

그러면 별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8억 삭감합니다.

전문위원, 들었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 협력외교 중에 공관장 에너지보좌관에서 보좌관 초청 연수사업 4억을 깎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녹색성장 협력 강화사업 중에 저탄소녹색성장 개발 패러다임 정립·확산 주도 중 주요국 정책사례 발굴 및 분석 2억, 주요 국제기구와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확산 공동 주도 2억 해서 합이 8억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별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에너지보좌관들 방한 초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8억에서 4억으로 깎아 주시면……

○소위원장 문학진 아니, 지금 4억으로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 안 되겠다 이거지.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저희가 본래 에너지보좌관들을 고용해서 에너지 외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홍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국내에 초청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 주고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한가한 소리 같은데? 그 정도는 알고 무슨 보좌관을…… 나는 처음에 에너지보좌관이라 그래서 엄청난 전문가들인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국내에 불러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돈 줘 가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아니, 국내로 불러 가지고 에너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니까 깡통들을 돈 줘 가면서 불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서 현지에서 활동을 시키겠다는 것 아네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에너지보좌관들이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홍정욱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에너지보좌관 제도의 효율성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 8억 정도 삭감하자는 안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것은 아주 약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8억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가고 나중에 이의 있으면 또 토론하도록 합시다.

다음 넘어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13건입니다.

빠른 속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JPO 사업입니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JPO 파견 인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영선, 홍정욱, 남경필 위원님의 대체토론이 있으셨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정부 말씀하세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러면 얼마를 증액하겠다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금년도 수준으로 하려면 신규로 5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신규로 2명밖에 못 나가는 예산이거든요.

○홍정욱 위원 그러면 3명 더하면 한 사람 앞에 11만 불이니까 최소한 33만 불은 늘려야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15명이었나? 15명으로 증액하는……

○홍정욱 위원 작년에 10명이었지요. 1차 연도 5명, 2차 연도 5명.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것이고요. 그 정도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하실 것인지……

○홍정욱 위원 우리는 당연히 더 늘어나는 것이 좋지만 지금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으니까 최소한 10명으로 현상유지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현상유지 수준으로 하시려면 6억 90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홍정욱 위원 그게 1차 연도 5명, 2차 연도 5명인 경우입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렇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렇게 작년 수준을 최소한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하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좋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러면 증액 6억 9000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 문제 대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윤상현 위원, 황진하 위원님께서 대체토론해 주신 부분인데, 향후 북핵 문제 대처라든가 6자회담 관련 예산 수요가 늘어날 것이 전망되므로 관련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저희도 금년 수준으로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러면 85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진하·송민순·진영 위원님께서 대체토론해 주셨습니다.

2010년도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600명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예산서상 3000명만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의식주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확보한 수준에 그치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600명은 하나원에서 추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춘식 위원 미니멈 600명은 올려주어야 되겠네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홍정욱 위원 600명 추가편성하면 얼마 정도 증액되는 것입니까?

○신낙균 위원 8억……

○홍정욱 위원 지금 45억을 증액했는데 거기에 8억을 더 추가로 증액하자는 의견이신가요?

○소위원장 문학진 8억이 맞아요?

○외교통상부조정기획관 최연호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요, 8억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8억 정도? 정확히 계산 좀 해 봐요. 일단 8억 증액으로 해 놓고, 다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국제기구분담금 납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무분담금하고 각종 사업분담금을 유엔에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홍정욱 위원, 황진하 위원께서 구체적인 PKO 분담금 체납액 해소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내년도 예산은 내년 4월까지 PKO 분담금 체납액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분담률 재산정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 PKO 분담금 납부대책을 마련해서 한 번 국회하고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국제기구분담금은 현 수준으로 유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정욱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상습 체납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

장 해소 못 하니까 부대조건을 달아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조기에 해 달라'라는 조건을 달아 주세요.

○소위원장 문학진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와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님께서 서면을 통해서 한·EU FTA 자원외교에 역행하는 지역국 사업예산의 예산편중을 시정하고 유럽·아중동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사업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서 55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외공관 주요 행사비에 한·러 대화에 5억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4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는 현행대로 놔두셔도 될 것같습니다.

다만 아중동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는 23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중동 지역 경우에도 에너지자원외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2300만 원 삭감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말씀해 주세요.

○홍정욱 위원 이 부분은 아까 글로벌 인적 인프라 예산도 있고 에너지예산도 있고 큰 액수 아니니까 예산안대로 그냥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사업입니다.

김충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일본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일본 대사관에서는 새로운 민주당 정부를 상대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뉴질랜드 대사관 관저의 처마 수리비 등 재외공관에 대한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것 필요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처마 수리비가 얼마예요?

○홍정욱 위원 그런데 왜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에 뉴질랜드 대사관 처마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소위원장 문학진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냐고요. 이것 김충환 위원의 주장이다 이거지. 이런 것은 하긴 하더라도 좀 빼 버려도……

○홍정욱 위원 이건 뭐예요? 이 비용이 실제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아닙니다.

○홍정욱 위원 잘못 처리하신 겁니까?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김충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사업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춘식 위원 이것 원안대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일본 대사관 인적 네트워크 구축비용에 대해서도 원안입니까?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신정부가 9월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9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주일 대사관에서 2010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일 대사관에서는 일본의 신정부와의 미래지향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증액시켜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도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춘식 위원 일본이 하토야마 정권으로 바뀌어서 모든 인적 네트워크가 새로 바뀌니까 권철현 대사가 활동을 올해 맹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10억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나한테 했어요.

○소위원장 문학진 권 대사가 10억 필요하다고요?

○이춘식 위원 예.

○정동영 위원 나는 5억 정도 올려 달라고 했는데 올라갔네요.

○이춘식 위원 5억인데 10억으로 해 달라 이거지요.

○홍정욱 위원 지금 5억인데 10억으로요?

○이춘식 위원 예.

○정동영 위원 현재 5억이 있어요? 없는데?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지금 5억이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5억을 신청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서는 예비비에서 반영이 안 되었고요.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 10억인데 위원님들께서 금년도분하고 해서 15억을 증액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춘식 위원 일단 필요한 돈을 같이 해 달라?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5억을 못 했습니다.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여기는 2억 7200을 가져온 것 아녜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그것은 기존에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사업의 2억 7000이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15억입니다.

○정동영 위원 10억 대신 5억을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5억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동영 위원 금년은 다 지나갔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요.

○소위원장 문학진 지난 것은 얘기할 거 없잖아요? 버스 지나갔는데. 버스 지나간 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그래도 금년도 사업을 못 하니까 그 사업을 내년도에 할 수 있게 해 주시면요, 지금 주일대사관에서는 아직……

○신낙균 위원 뭘 한다는 거예요?

○홍정욱 위원 정책강연회 4억, 정책간담회 4억, 주요인사 개별적 접촉 3억 8000, 유력의원 방한 초청 1억, 보좌관 초청 1억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10억이 필요하다고요?

○홍정욱 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 10억에서 15억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그렇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런데 한 대사관에만 그렇게 10억씩 원안에도 없는 걸 증액을……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주일대사관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수립이 돼서 지금 새롭게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충분히 지원해서 저희가 대일외교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같은 민주당이신데요, 이거 좀……

(웃음)

○소위원장 문학진 일본 신임외상 만나고 왔잖아요. 한 5억 해 줄까요?

○정동영 위원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10억으로 합시다.

○신낙균 위원 그런데 5억 미션을 가지고 왜 10억으로 불립니까?

○이춘식 위원 올해 5억, 내년 10억.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니까 우리 정동영 위원님한테는 권 대사가 올해 걸 얘기를 한 거고 이춘식 위원님한테는 내년 걸 얘기한 건데 올해 건 지나간 얘기이고, 내년 10억은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홍 위원이 리스트 읽은 거 내가 들어보니까 조금 과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정동영 위원 전화받은 내용을 좀 얘기해 봐요.

○홍정욱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특히 같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위원들이 많이……

○소위원장 문학진 ‘같은 민주당’ 소리 좀 그만해요.

(웃음)

○홍정욱 위원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올해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잘할 수 있게 내년에 10억은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좋습니다. 자, 10억 갑시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러면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에 10억 원 증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신낙균 위원님께서 문화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전체 프로그램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그 5300만 원 얘기가 되겠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식 위원 이거 증액해 주기로 했잖아.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그러면 5300만 원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국제협력단 출연금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천·김충환·홍정욱·송영선·송민순 위원께서 ODA 업무 증가를 반영한 한국국제협력단 인사 충원 및 인건비 증액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KOICA에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 장현식 내년도에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으로 봤는데 이것은 호봉승급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건비 증액하고 그다음에 인원 충원을 해 달라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신입직원 30명을 이번에 충원했습니다. 그런데 직제 정원이 이미 차 있어서 그분들은 정규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30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하게 되면 한 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건비 증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정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30명에 대해 가지고 정규화할 수 있는 7억 정도를 해 주시면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우리가 봉사단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2500명이 됐는데 지금 관리직원이 140명당 1명씩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이 관리직이 부족해요. KOICA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평소 소신대로 지원을 해 주시지요. 7억이라고 해도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소위원장 문학진 공감합니다.

○이춘식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좋습니다, 7억.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인건비 출연 7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 IPPF(국제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정의화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국제기구협력 사업의 IPPF 지원현황은 지금 HIV 에이즈 보균자 성·생식 보건 향상 및 감염방지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7만 7000불이 지원됐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6만 9000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협력단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사 장현식 저희들이 IPPF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05년부터 해 가지고 50만 불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70만 불, 작년에는 30만 불 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14만 6000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보니까 외교부하고 다시 한번 논의할 사항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만일 하신다 그러면 외교부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의견 주세요.

○홍정욱 위원 이건 아직 KOICA에서 증액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데요.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더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 11쪽의 열 번째 항목, 재외국민 선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재외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기간 동안 국외 현실을 반영한 재외선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액 5억 5000만 원을 신규로 책정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선영 위원께서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에 대비한 관련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체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외교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재외선거 준비 예산으로 배정된 5억 5000만 원은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준비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외교부로서는 동 예산을 최대한도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10년 예산이 외교부의 최초 재외선거 준비 예산인 만큼 2010년 예산의 집행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준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놔둬요.

○홍정욱 위원 예, 그렇게 유지하시지요.

○이춘식 위원 그것은 해 줘요.

○소위원장 문학진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열한 번째 항목,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화된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에 대해서 적절한 유지보수 및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함으로써 재외공관 시설물의 안전성 및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등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정옥임 위원께서는 외교통상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리모델링에

연간 70억 원, 시설정비에 138억 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저희 외교부로서는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 예산을 국유재산 자산가치의 1.3%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 208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재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경부에서도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에 대한 국유자산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매년 예산에 집중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전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증액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게 뉴질랜드 대사관 처마인가 여기 들어갈 돈이구먼?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그렇습니다.

○신낙균 위원 공관마다 일차적인 하소연이 이거거든요, 요구사항이.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할 사업이에요.

○홍정욱 위원 외교부가 1억 800만 원 올려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시지요.

○신낙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해서 해야 될 거예요.

○소위원장 문학진 그럽시다.

○정동영 위원 뉴질랜드 처마는 얼마 안…… 얼마나 들어요? 그거 몇백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4만 불입니다.

○홍정욱 위원 그거 꼭 해 주세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처마 고치는데 4만 불이나 들어요?

알았어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러면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에서 1억 8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에너지·녹색성장 외교강화 사업입니다만 이건 앞서서 8억 원 감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춘식 위원 정리된 거지요. 넘어가고.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이건 정리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재외공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용인즉슨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공관의 기능을 하는 사무소를 추가 적으로 동북3성 지역과 같이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박선영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내년 예산에 금년에 신설된 2개 공관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공관을 증설할 경우 내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어디지요, 두 군데가?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우한 총영사관하고 유네스코대표부입니다.

○정동영 위원 내년에 두 군데 합니까?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내년에 두 군데 새로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우한?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우한 총영사관하고 유네스코대표부입니다.

○정동영 위원 돈 드는 건 아닌데 오클랜드에 분관이 있는데 그것을 총영사관으로 승격하면 본부에 무슨 예산 부담이 있지요? 왜냐하면 교민이 거기에 3만 몇천 명 되고 워킹홀리데이 뭐, 뭐 해서 학생들도 많이 와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 영사, 뭐라고 그럽니까, 콘슐러 제너럴(consular general)이 아니라……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콘슐러 오피스(consular office)라고 저희가……

○정동영 위원 대외직명으로 사용을 못 하는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그 명함을.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던데, 이건 예산 드는 것도 아니던데……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저희가 총영사관으로 승격해야 될 대사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당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활동함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정동영 위원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총영사로 승격했을 때 예산 부담은 전혀 없지요? 뭐가 있어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약간의 예산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큰 부담은 아닙니다.

○정동영 위원 왜냐하면 그게 총영사가 안 됨으로써 거기에 와 있는 3만 몇천 명이나 되는 교민들에게 서비스가 그분들 필요에, 예를 들면 교도

소 면회를 간다든지 할 때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시정부라든지 정부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 콘슐러 제너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면 훨씬 더 공적인 자격으로 하는데 그런 자격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여기 원래 안대로 갈까요?

○홍정욱 위원 예.

○소위원장 문학진 다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이상으로 감액과 증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도개선 부분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차익 발생의 문제입니다.

진영·정의화·송민순·이범관·구상찬·박주선·정옥임·신낙균 위원께서 환차익 발생 시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하고 환차손 발생 시 이를 충분히 보전할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저희 외교부로서는 환차익과 환차손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전혀 장애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저희가 연구용역, 공청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

○소위원장 문학진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낙균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홍정욱 위원 매년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그건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반영입니다.

신낙균 위원, 구상찬 위원께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성인지 예산제도를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KOICA의 ODA 사업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춘식 위원 KOICA 예산에 이게 반영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 장현식 저희들이 성 주류화에 대해 가지고 지금 ODA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여성팀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그것을 경영 효율화 때문에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 주류화와 관련해 가지고 신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전담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신낙균 위원 이 성인지 예산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되면서 원래 각 부처가 5개 이상 하기로 돼 있는데 외교부가 이 성의식이 약해 가지고 KOICA 사업 하나에, KOICA 사업 중에서도 딱 1건만 했다고요. 그래서 외교부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례를 서면으로 보냈으니까…… 그거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여성만 많이 해라 이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이 매해 성평등지수 내놓는데 한국이 항상 최하위니까, 국가이미지 뭐 브랜드위원회가 개선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은 좀더, 이것은 의식과 성실성의 문제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저희 외교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외교부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자, 됐습니까?

○신낙균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세 번째, 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순방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영 위원, 정의화 위원, 신낙균 위원께서 사업 수요에 대한 과소 예측을 지양해서 연례적 예비비 집행 관행을 시정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낙균 위원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이춘식 위원 제도개선으로……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이것하고 조금 그 핀트가 다르기는 합니다.

아까 제도개선 사항은 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순방 사업 예산의 특수활동비 항목을 예산집행기관인 대통령실로 이관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다르니까 여기에 붙여서 특수활동비 항목을 예산집행기관인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연례적인 예비비 집행 관행을 지양할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예, 좋아요.

○신낙균 위원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네 번째, 테러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안보협력 사업입니다.

송영선 위원께서 1개 공관당 평균 지원액이 적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테러와 관련한 여타 기존 사업 예산과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8개 공관당 158만 원의 예산이 테러대응 체제 강화 및 국제안보협력 예산으로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송영선 위원님의 1개의 공관당 평균 지원액이 적다는 지적에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예산은 40개의 테러 중점 공관에 대테러 정보수집을 지원하고 청해부대 작전활동,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서 테러 취약국 공관에 대테러 보안시설을 설치·보완하는 대테러 특별경호·경비 및 보안시설 강화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 운영은 곤란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아니, 40개 공관에 1억 6000을 보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죽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정책기획국장 이윤 제가 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업은 어떤 테러정보하고 또 주재국 인사하고의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재국 인사와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동포사회하고의 협조체제 구축이라든가 필요한 그런, 테러 관련한 DB라든가 이러한 것들, 다시 말씀드려서 테러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홍정욱 위원 현지와의 네트워크 강화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항목을 도대체 몇 개를 만드는 겁니까? 늘리지를 못 하니까 자꾸 새로운 것 하는데, 이것 어쨌든 대테러와…… 지금 얘기하는 것 주재국 사람들과 협조체제 구축하는 거라면서요?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정책기획국장 이윤 저희가 이번에 40개 공관을 대테러 중점 공관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테러 중점 공관은 테러가 자주 나는 지역하고 테러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공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0개를 선정해 가지고 그 공관을 중심으로 해서 테러에 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이 사업은 테러에 대한 사전예방으로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은 하드웨어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양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40개 공관을 중심으로 해서 테러정보를 수집해서 사전에 테러에 대한……

○홍정욱 위원 1억 6000만 원으로 테러정보를 수집하겠다고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저희는 사실 많은 액수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이번에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시행을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해 보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13쪽 다섯 번째,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까지는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 파트너십 증진 활동에 대한 별도 사업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에서 열리는 회의라든가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제기구국의 기본경비에서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홍정욱 위원께서 기본경비로 집행해 오던 예산을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필요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기본경비로서는 저희가 유엔에서 하고 있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번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이 사업은 유엔 PKO 관련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동해 표기 확산활동을 하고, 군축·비확산회의도 개최하며, 무기 불법중개방지 국제회의를 또 개최하며, 세계핵테러방지구상회의 등 그간 국제기구국에 별도 사업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사업을 이번에 내실화해서 해 보겠다는 사업입니다.

○홍정욱 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대조건을 달았던 것처럼 기존에 예산으로 활용해 오던 사업에 신규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것을 내년도에 체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여섯 번째 제주평화연구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정옥임 위원께서 민간재원 확충을 요구한 국회 부대의견 준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설립 당시 목표한 민간기금 50억 원이 아직 조성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매년 10여 개 기관회원으로부터 기금 약 20억 원에 해당하는 약 1억 원의 연간 이자를 후원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원금 모금대상을 새로운 기관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 편성된 4억 5000만 원은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제주평화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2억 원을 삭감했고 또한 저희들이 운영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는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억 50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홍정욱 위원님.

○홍정욱 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우리 국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은 계속해야 되겠지만 50억 원의 기금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불충분하고 그것은 작년에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으로 시한을 정해서 어떤 식으로 마련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제출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시 한번만 부대조건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욱 위원 향후 민간기금 50억 원을 어떤 일정에 따라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계획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

○홍정욱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신아시아 외교 추진이 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께서 예산액의 대부분이 한·아세안센터 지원에 편성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구상찬 위원께서 동 사업은 2009년 KOICA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바 산하기관에 위탁하였다가 외교부 사업으로 재편성한 사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한·아세안센터는 우리나라가 서울에다 설립을 해서 사업비하고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특수한 센터입니다. 초기 2년간은 KOICA 국제협력예산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한·아세안센터가 신아시아 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에 KOICA 국제협력사업 예산에서 지원받던 것을 금년에는 독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신아시아 외교라는 게 지금 이명박 정권이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래서 생긴 말이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소위원장 문학진 의견 있습니까?

○신낙균 위원 한·아세안센터에 별도 협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44억 원을 배정한 게 좀 과도한 것은 아닌가……

○이춘식 위원 44억이 과하다 이거지.

○신낙균 위원 예, 한·아세안센터에 협력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외교통상부아세안협력과장 정병후 아세안협력과장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이 300만 불이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이제 500만 불 될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아세안협력과장 정병후 예, 그 예산이, 새로 금년 3월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물론 저희들이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사업을 주로 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별도의 국제기구이고 또 저희들이 센터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자,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춘식 위원 이명박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니까 그대로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문학진 적극 도와 드려야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외교홍보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정욱 위원께서 외교부장관 주최 영어 스피치 대회라든가 기자단·대변인 교류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영어 스피치 대회 예산은 2400만 원이고 기자단·대변인 교류 예산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설명 좀 해 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조실장, 외교부장관 주최 영어 스피치 대회 이건 누가 참가해서 하는 거예요?

○홍정욱 위원 학생들 불러다가 영어 논술대회 같은 것하고 상 주고……

○신낙균 위원 우리나라?

○홍정욱 위원 예, 국내에서……

○소위원장 문학진 국내에서 학생들?

○홍정욱 위원 예, 학생들, 젊은이들 대상이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대학생들?

○홍정욱 위원 그래서 대회하는 거예요.

대변인 교류는 우리 대변인이 중국하고 일본 가서 거기 대변인들하고 만나서 교류하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문학진 기자단은?

○홍정욱 위원 기자단은 아니지요. 대변인이 교류하는 거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기자단·대변인 교류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정욱 위원 그래요? 4600만 원에……

놀러 가는 거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그리고 영어 스피치 대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G20 서울 개최 의의와 관련해서 영어 스피치 대회를 하는 겁니다.

○홍정욱 위원 우리 홍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 형편없이 부족한데 다른 기관들도 많이 하고 있는 영어 스피치 대회를 우리 외교부가 하는 것에 대한 차별성도 없고 액수도 형편없는 액수고, 또 우리의 위상을 대외에 강화하는 홍보는 중요하지만 대변인이 다른 나라 대변인하고 교류한다고 그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저는 그 점에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부분,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나도 동감이에요.

○신낙균 위원 예, 외교부가 이것을 한다는 것, 또 언론재단이 그런 것 하고 있는데, 기자단 교류사업을 언론재단이 하지 않아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저희가 일본 외무성하고 중국 외무성하고 정기적으로 기자단하고 대변인을 교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효과보다도 양국 정부 간에 약속된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일본하고도 하고 중국하고 하고?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중국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대변인과 기자단이 서울에 오고요, 저희 외교부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단하고 대변인이 또 중국도 가고 그렇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건 그렇다 쳐도 영어 스피치 대회를 외교부가 주최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소위원장 문학진 굉장히 촌스러운 아린지(orange)같아. 굉장히 촌스러운 것 같아, 영어 스피치 대회.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내년에 G20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니까 그 G20회의와 관련해 가지고……

○홍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데 신경 쓰지 마시고 홍보 제대로 하세요. 조그마한 거니까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신낙균 위원 맞아요. 외교나 제대로 하시지. 외교역량 강화나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러시면 삭감?

○홍정욱 위원 예, 영어 스피치 대회 삭감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기자단·대변인 교류사업은?

○이춘식 위원 스피치 대회만 빼버리고, 기자단은 그대로 놔두고.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기자단은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영어 스피치 대회 이것 관두시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러면 24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입니다.

이범관 위원님께서 영사 1인당 담당 동포 수가 과다하여 순회영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순회영사지침을 만들어 동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설문 배포 및 회수, 적은 표본 설정 등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순회영사 활동을 위한 영사 인력을 단기간에 증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에 순회영사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억 1200만 원이 되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순회영사 활동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외통위 회의실에서 답변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의견 주십시오.

○홍정욱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춘식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잘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열 번째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상찬·이미경·남경필·황진하 위원께서 국제교류기금 잠식 문제로 인해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늘리고 기금 지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것도 항상 받던……

○홍정욱 위원 고질적인 문제인데 지적하고 넘어가시는 게……

○이춘식 위원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지요.

○신낙균 위원 만날 이렇게 지적만 하고 만날 똑같은 것 반복, 이것 언제까지 해야 되나.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다자 간 경제안보협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께서 에너지·녹색성장 외교강화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성을 갖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저희가 금년도에는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갑시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열두 번째,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홍정욱 위원, 신낙균 위원께서 대체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에너지보좌관 사업 및 기본경비 인건비 등 여타 예산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일괄적인 행정원 보충 및 일률적인 선임연구원 초임 산정은 부적절하므로 공관별 채용 필요성을 점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정 인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2010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선임행정원 22명, 전문행정원 74명, 사무직 20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 강화사업은 내년도 외교부의 재외공관에 대한 아주 중점사업입니다. 현지인 행정원 역량 강화사업은 3년 동안 450억을 투입해서 재외공관 행정원들의 양과 질을 개선한다는 사업입니다.

물론 인원을 늘리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외공관에 있는 행정원들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을 삭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60명을 늘리면서 130명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130명 정도가 증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기본경비하고의 융합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재외공관 행정원들의 봉급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봉급이 낮은 것도 3년 내에 저희가 정상화시켜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 보니까 제일 문제시하는 것은 각 국가의 임금 또 물가수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초임을 7000달러 이

렇게 산정을 했기 때문에 생활비용이 높은 나라에서는 훈련만 시켜 놓으면 나가고 나가고, 누가 그쪽에 붙어 있지 않는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매우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7000불을 잡은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잡았고요, 실제로 집행할 경우에는 그 나라 물가 수준과 봉급 수준을 차등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각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 2, 3세대를 집중적으로 고용해서 2, 3세대가 현지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또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홍정욱 위원 지금 이 프로젝트가 3년 짜리인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그렇습니다.

○홍정욱 위원 저도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에너지보좌관 사업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외교부가 인건비 차원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늘리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재외공관에서 고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투명성이라는 차원에서는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년 후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에는 반드시 인건비 항목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3년 후에는 기본경비로 통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예,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됐습니까?

다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열세 번째, 공관장 회의 및 겸임국 출장이 되겠습니다.

공관장 회의는 재외공관장들의 국내 정세 인식 제고라든가 주요 외교통상 정책 및 지침의 직접 하달이라든가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유기적인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상찬 위원께서 공관장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체재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지역단위별 회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외교부에서는 매년 공관장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왔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지역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 개최 공관장 회의와 지역별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 그 득실을 따져서 어느 공관장 회의가 유용한지를 지금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에서 공관장 회의를 개최해서 금년에 개최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에서 개최하여 체재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에서 개최할 경우에 숙박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 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별 회의가 서울 개최 공관장 회의보다 낫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저희는 양쪽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춘식 위원 글쎄, 이번에 우리 국정감사 때 남미의 대사들이 남미에서 아틀란타에 가는데 비행기 값이나 호텔 값이나 돈도 절약되는 것이 없고 국내에 와서 정보도 얻고 국내 사정도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지역별 회의하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많이 이야기합디다.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해서 외교관들이 대사들이 1년에 한 번은 본국에 와 봐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 가지 돌아가는 분위기도 알고.

그런데 이게 예산 절약도 얼마 못 하면서 외국에 그대로 있지, 그냥 서류로 보내지, 괜히 아틀란타에 다 모여 갖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본국에서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1년에 공관장들이 서울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이것 하나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이것 한 번밖에 없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것은 외지에서 서울로 모이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재외공관 청사·관저의 국유화를 위해서 차입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원금을 10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낙균 위원님께서 장기적인 차입으로 인해 과다한 이자 부담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므로 향후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신낙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현재 재외공관 국유화율이 48% 수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60% 수준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고채무부담행위가 감소하고 일반적인 세출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옳으신 지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위원장님,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부분이 다 종료가 됐는데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님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고려인의 합법적 국적 취득과 정착이라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무국적 고려인 문제는 불행한 역사의 단면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고 국가에서 외교 교섭으로 해결할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과 함께 금년 하반기에 문제돼서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추가소요예산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면질의서를 취합할 때는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주셔서 제가 이것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추가소요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면 2010년도에는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를 위해서 약 4억 원 정도 요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저희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해 주시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러면 이것은 어느 국 제도로 하는 거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재외동포영사국……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재영국, 사업 프로그램 이름이?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 강남훈 재외동포재단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재외동포재단 출연금이에요?

여기 재외동포과장 와 있어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금병목 거기 4억의 성격이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금병목 저희들 예년 예산이 12억이었는데 저희 재단도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22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원사업이 나누어서 줄게 됐는데 그것을 예년 수준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러면 증액을 어디다 해 드리면 되지요? 재외동포재단 출연금에 해 드리면 됩니까?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금병목 예.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재외동포재단 출연금에 4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그리고 저희가 하나 요청드릴 사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해외 한민족 우리 역사 알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단법인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에서 우리 역사 알리기, 알기 쉬운 한국사를 5개 국어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지원으로 1억을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지금은 얼마로 돼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지금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신규로 1억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소위원장 문학진 그 사업이 괜찮습니까?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역사를 알기 쉬운 만화로 해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언어

를 모른다 할지라도 만화를 통해서……

○소위원장 문학진 누가 하는 거지요, 그 단체?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단체는 사단법인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것 누가 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이기택 이사장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평통 수석부의장?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홍정욱 위원 이것은 평통하고 별도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이것은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 사업 중에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1억을 해서 몇 부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배포하겠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계획서를 보시면 1000부를 만든다는 얘깁니다. 5개 국어판으로 1000부니까 전체적으로 5000부지요.

그래서 지금 알기 쉬운 한국사를 추가적으로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로 제작하고 또 우리 역사 만화로 5개국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혹시 이념적인 그런 문제로 이런 것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순수한……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당초에 아마 이 단체가 중국 조선족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범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알리기 운동을 해 온 것인데 이념성보다는 주로……

○신낙균 위원 순수하게 우리 역사를 알리는 것이면 아주 좋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그런데 대표 성함을 들으니까 조금 걱정이 돼서……

○신낙균 위원 그런 것으로 괜히 더 갈등……

○소위원장 문학진 크게 걱정될 게 없으면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요.

○신낙균 위원 예, 역사 자체를 알린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는데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오히려……

○홍정욱 위원 내년에 나오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소위원장 문학진 이의 없으면 하는 것으로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1억 투자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이것은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민간단체지원 사업에 1억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예.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다음 16쪽 국제교류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3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 번째는 기금운영비 중에 워싱턴사무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구상찬·김충환 위원께서 해외사무소 업무의 다른 정부기관과의 중복 문제라든가 워싱턴사무소를 대사관 내에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사무소 임차료를 여전히 2010년도 예산에 책정한 문제는 중복 예산 계상이 되므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씀드리면 5만 4000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은 2008년경부터 워싱턴 D.C.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1명은 우리 주미 한국대사관에 들어가고 1명은 LA총영사관에 근무하는 형태로 예산 절감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축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계획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주택임차료가 들어가 있는 반면 동시에 D.C.에 사무실 임차료 5만 4000불이 들어가 있어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이 문제는 우선 계약이 2011년 8월 31일까지인데 지금 우리 계약을 후임에게 테이크 오버(take over)할 수 있는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든 안 쓰든 돈은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LA로 보내고 나머지 한 사람이 후임자가 나타나서 테이크 오버할 때까지는 여기 사무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2010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홍정욱 위원 2011년 8월까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2011년 8월 31일까지인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천상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 사람이 남더라도 이것을 써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신낙균 위원 그 계약 조건이 어떤가에 달렸겠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 8월 31일까지.

○이춘식 위원 새로 사용할 사람이 나타나면 되

는데……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테이크 오버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그래도 2년씩 이렇게 끌고 예산에 또 반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워싱턴 D.C. 사무실 임차계약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저희에게 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딱 끊겨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그것 한 장이 있습니다. 한 장 있으니까 보관해 드릴 테고요.

○신낙균 위원 그리고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대개 리스를 해도 만기일이 있어도 중간에 조건이 있어요. 2개월 전에 노티스(Notice)하면 된다든가 그런……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이 경우는 노티스 2개월이 아니고요.

○신낙균 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거기에 안 포함됐다니까 좀 의심스럽겠지요.

○홍정욱 위원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내년 1월 1일자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은 논리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예산이 남아 있다고요?

○홍정욱 위원 사무실은 아무도 안 쓰겠다는 계획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1월 1일자로 그렇게 예산 절감하는 것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가 써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신낙균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이것은 예산 편성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으로 LA 예산도 들어가 있고 D.C. 예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만 4000불을 전부 삭감해야 되는 것이 일응 타당함에도 만약에 그런 사정이 있다면 위약금조로 한 2만 불 정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그냥 삭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그러면 이 5만 4000불을, 우리가 나머지 돈을 어떻게 구합니까? 남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전용할 수 있거나 쓸 수 없는 돈인데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 계획만 세우시고 시도를 안 하셨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아니, 우리가 계획 세운 것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LA에 그냥 한 사람 보내고 대사관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했는데……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 보고를……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그것까지 보고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우리가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정동영 위원 언성을 살살 하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그런데 내년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원매자가 안 나타나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딱한 사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바로 그러한 부분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홍정욱 위원 그런데 비용 절감을 위해서 LA로 보냈는데 그러면 거기 예산 따로 있고 이것 별도로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면 비용이 오히려 늘은 겁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아니, 그러니까 공관에 들어가니까요. 그 공관도 비어 있습니다. 이쪽도 공관이 있고 워싱턴도 공관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관 비용도 절감되고 우리가 서부에……

○홍정욱 위원 한 사람을 LA 보낸 것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안 든다는 얘기예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예, 안 들지요. 아직 보내지 못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이 2만 5400불이 책정돼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주택임차료는 똑같이 들어가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양쪽에 다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아니지요. 워싱턴에 있으나 당연히 임차료는 들어가야지요, 사람이 집을 얻고 살아야 하니까.

○소위원장 문학진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저는 LA로 가겠다 하는 사업도 국회에 제대로 보고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의아할 뿐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굳이 LA로 가야 할 이유가 없게 되겠네요, 어차피 5만 4000불을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LA 주택임차료를 깎고 그 부분을 지금처럼 D.C. 임차료로 해서 D.C.에 그냥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지금……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서부에 일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 사람을 한 사람씩 동부·서부로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리고 또 임차료를 5만 4000불씩 들일 필요 없이 워싱턴 대사관에 요즘 빈자리가 생겼고 LA도 빈자리가 생겼으니까 이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러면 예산 절감은 전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왜 안 됩니까? 앞으로 5만 4000불씩 계속 나가야 될 것을 안 나가는데 후임자만 나타나면 임차료는……

○홍정욱 위원 아니, 지금 후임자가 안 나타난다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후임자가 안 나타난다고 말씀하셔 놓고서 후임자 나타나면 절감한다고 그러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그러니까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요, 2010년……

○홍정욱 위원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지금 예산 절감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예산 절감 안 되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당장은 지금……

○홍정욱 위원 안 되잖아요? 말을 바꾸지 마시고 예산 절감 안 되는데 뭘 예산 절감…… 내후년부터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이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어떻든 간에 좌우지간 우리는 사무실을 유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장래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 되면……

○홍정욱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은 내년에 얘기하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필요합니다. 임차료가 필요하지요, 후임자가 안 나타나니까.

○소위원장 문학진 제일 이 내용을 잘 아는 수석전문위원 결론 내 봐요.

○홍정욱 위원 예산 절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무실을 안 비워 주니까 예산 절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비어 있어도 돈을 계속 내야 되니까 그 예산을 정해 달라 그 얘기예요. 좀 우스운 예네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이 점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고 내년도 예산은 확보시켜 주십시오.

○홍정욱 위원 2009년에 비해서 리스 비용이 1300만 원은 왜 올라갔어요? 5300에서 6600으로 올라간 것은 왜 올라갔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게 연도별로 증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참 방만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5만 4000불을 그대로 주면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속 D.C. 사무소를 운영하시겠다는 뜻이네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계약자가 나타나면 절감이 되고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내년 예산안대로 다……

○홍정욱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절감을 해서 빨리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시지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이 사무실을 없앨 수 있도록 절감하는 그런 긴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이 예산은 남아도 우리가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홍정욱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지적을 하셨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의 긴장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보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돈이 모자라면 다른 데서 전용해 올 수 없는 성격의 돈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이사님께서 저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제도개선의 부대의견을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렇게 하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내년에는 다시 이런 보고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예.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두 번째 항목,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구상찬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민간단체지원 사업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단체지원은 불투명하고 위법적인 예산 집행이 관행화되어 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예산안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5일날 국정감사 시에 구상찬 위원께서 일부 민간단체에서 단체 선물비를 소위 말하는 카드깡을 했다라는 내용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 교류재단이 보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앞서 워싱턴 사무소 임차료 문제도 그렇고 좀 행정적으로 관계 직원들이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정욱 위원 이것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이것은 서면질의이기 때문에요.

○홍정욱 위원 이것 작년에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민간단체지원 내역에 대해서 다 주세요.

다음 건을 먼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잠깐만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찬 위원님이 국정감사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14개 민간단체에 대한 일체 감사를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통해서 실시한 결과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카드깡 같은 것은 없었고 일부 인건비가 규정 외에 지급된 것은 환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선물비라든지 만찬비가 좀 과다하다든지 또는 법정영수증을 쓰지 않았다 하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규정을 통보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좀더 모니터링하고 또 회계처리 부분을 공인회계사무실을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지원의 큰 문제점은 그렇게 불투명한 사용도 하나의 문제점이지만 또 하나는 그 단체들이 지금의 자금을 효과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다라는 검증 없이 기존에 나가는 단체들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마치 정말 눈먼 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관계의 경쟁과 어떤 시의 적절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상찬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리스트와 이런 것을 조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트를 가져오는 대로 검토를 하시고 3번 먼저 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소위원장 문학진 3번 먼저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3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교류지원 민족문화 보존·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이 사업예산은 1억 6500만 원이 다른 사업에 전용이 됐고 예산현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동 사업에 대한 4억 4500만 원 예산안 편성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고 구상찬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시면서 2010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서 사실상 증액되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감액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 강남훈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족문화 보존·유지사업 4억 4500만 원은 저희 재단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 및 CIS지역 재외동포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의 경우에는 재단의 실질적인 예산이 사실은 12억이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외동포의 민족문화 보존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9년의 경우 한식네트워크구축지원 예산 1억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올해 하고 있는 신규사업인 글로벌코리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이 1억 원이 이전되었습

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은 3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한글학교 운영비가 매우 부족해서 부족분을 이 예산의 6500만 원을 전용해서 한글학교 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경우에 재외동포의 교류증진 권익증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재외동포 문화단체 등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삭감을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신낙균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문화외교의 일환으로서 재외동포의 민족문화 보존사업은 유지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춘식 위원 그런데 1억 6500이 남아서 전용이 된 거예요, 왜 전용이 됐지요?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 강남훈 1억 6500 중에서 1억은 원래 민족문화고유사업의 명목으로 된 사업이고, 한식네트워크구축사업으로 해서 들어와서 이게 별도의 항목이 없어서 민족문화 그 예산으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한글학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춘식 위원 전용이 아니네……

민족문화가 중요하니까 이것은 좀 재단 측 의견을 들어주는 쪽으로……

○홍정욱 위원 그대로 편성돼서 사실상 증액되었다는 부분은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춘식 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시켜 주는 것으로, 민족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 강남훈 사실은 재외동포 문화예술 단체에서 지원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예산이 그렇게 막……

○이춘식 위원 그거 물건 좀 제대로 된 걸 줘요.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악한 것 이런 것을 막 주거든요. 장구 같은 것도 주려면 좀 제대로 된 것을 줘요.

○소위원장 문학진 그래서 얼마를 증액하자는 거지요?

○이춘식 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1억 6500억이 증액이 됩니다.

○신낙균 위원 사실상 증액이 된 것이니까……

○홍정욱 위원 사실상에 증액이 된 것이니까 감액을 할 것이냐 그대로 놔 둘 것이냐……

○소위원장 문학진 지금 이춘식 위원님은 그대로 놔 두자는 말씀이시지요?

○이춘식 위원 예.

○소위원장 문학진 이의 없으십니까?

별다른 이의 없으면 그렇게 갑시다.

○홍정욱 위원 2번 잠깐 다시 돌아가 보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2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이 되겠는데요.

2개의 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하나 옆으로 된 것은 금년 2009년까지의 민간단체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13개 기관에 대해서 예산액이 33억 7000만 원이었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은 30억 9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옆으로 된 표에서 보시는 것은 기존에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된 자료는 금년에 지원을 받게 되는 민간단체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소위에 오셔서 기억이 나시겠지만 제 말이 맞는지 검증해 주십시오.

21C한중교류협력위원회를 작년에 저희 예산소위에서 2억 원을 책정했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홍정욱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5000이 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게 저희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홍정욱 위원 자, 이게 우리 외통위 위상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외통위에서 2억 원을 정했는데……

○소위원장 문학진 김한규 회장이잖아요.

○홍정욱 위원 저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여기서 2억 원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정했는데 그것을 예결위 통과 과정에서 다시 로비나 기타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증액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페널티로 짚고 넘어가 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실크로드재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우리가 이 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의 전액 삭감된 것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올해 다시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더 검증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 번째로 여기 지금 이 리스트를 보시면 산발적으로 지원을 받은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금 4년 내내 지원을

받고 있어요. KAS, 한중남미카리브경제인, 한일협력위원회,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일친선협회중앙회, 결국 어떤 성과의 유무 없이 계속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한중교류협력위원회 지원을 잠시 정정보고 드리면 당초에 2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한중친선협회가 1억 원이 왔고요.

그래서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각각을 1억 5000으로 해서 보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중교류협력위원회에 의해서 2억이 증액이 돼서 결과적으로 3억 5000이 된 것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우리 이거 다 몰랐지요?

○홍정욱 위원 예, 몰랐습니다.

○신낙균 위원 예, 거기서 된 것을 몰랐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러면 이 예결산소위의 존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낙균 위원 할 필요가 없어요.

○홍정욱 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강하게 이것은 대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리고 이 두 회장을 나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인데 구상찬 위원이 우리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던 것 아니에요.

○신낙균 위원 예, 그거예요.

○소위원장 문학진 자기 개인 홍보용으로 마구 한다는 것 아니에요?

○신낙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액해 놓고 실제 집행에서는 그런 문제성이 상당히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지금 2억으로 신청을 해 놨구나.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2010년도에 2억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홍정욱 위원 의견 얘기해 보세요.

○홍정욱 위원 저는 형평성을 위해서는, 작년에 1억 5000을 신청했다가 2억을 더 증액을 받았는데, 저희가 1억 5000을 요청했는데 2억을 증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최소한 올해 2억 정도는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0이 되는 거지요.

2억을 다 삭감을 하면 0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작년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너무 그렇게 삭감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액수 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21C한중교류협력위원회에 대해서는 액수 조정이 필요하고요, 둘째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 특히 지금 4년 이상 집행이 됐던, 3년 이상 집행이 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검토를 하는 방식을 부대조건으로 달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좋습니다.

KAS가 뭐지요, KAS?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조정실장 박상배 한아랍소사이어티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한아랍소사이어티.

○신낙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본 관계 기관이 5개이고 중국이 3개인가……

실크로드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소위원장 문학진 실크로드는 스탄, '탄' 자 붙는 나라들……

○신낙균 위원 그러면 중국이 셋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국과 일본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예요. 하는 것은 비슷한 사업을 할 텐데.

○홍정욱 위원 한중교류협력위원회하고 한중친선협회는 이번에 활동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1억씩 만을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한번 더 마지막 검증의 기회를 주시든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한중친선협회 우리가 작년에 예결소위에서 얼마를 주기로……

○홍정욱 위원 1억 5000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대로 된 거구나.

○홍정욱 위원 그런데 그 전해에는 1억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 1억으로 다시 환원시키고 또 한중교류협력위원회도 페널티 측면에서 1억으로 낮춰서 책정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하고요.

○소위원장 문학진 좋습니다. 둘 다 1억으로 합시다.

○홍정욱 위원 그리고 실크로드재단에 대해서도 작년에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아니, 구상찬 위원이 그러는

데 이것은 얘기가 좀 적던데……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작년에 저희가 5억 신청을 받았는데 2억을 삭감해서 보냈다가……

○홍정욱 위원 잠깐만요.

○이춘식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한중친선협회 1억 5000, 21C한중교류협력위원회 1억 5000 이렇게 했잖아요?

○홍정욱 위원 예.

○이춘식 위원 했는데 한중교류협력위원회는 페널티라도 한중친선협회는 가만 앉아 가지고 5000만 원 깎이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소위원장 문학진 한중친선협회 회장이 지금 누구지요?

○이춘식 위원 이세기.

○소위원장 문학진 이세기?

○홍정욱 위원 그런데 한중친선협회는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1억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5000을 올려줬지 않습니까?

○이춘식 위원 올려줬지.

○홍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알아서 올려준 것이니까 다시 환원 시켜도 괜찮지요.

○이춘식 위원 그래도……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네, 2008년에 1억이었네.

○이춘식 위원 지금 중국이 중요하다고 만날 이야기하면서 1억 5000씩 그대로 하면……

○홍정욱 위원 중요한 것은 중국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 이 친선협회와 교류협력위원회가 어떤 이바지를 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시지요.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춘식 위원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 보면 자기들이 다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니 이게 한중친선협회를 1억 5000 주다가 아무 이유 없이 1억으로 깎아버리는 게……

○소위원장 문학진 아니,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요.

○이춘식 위원 아니, 페널티는 21C가 페널티지 친선협회는 페널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홍정욱 위원 그러시든지요.

○이춘식 위원 1억 5000씩 해서……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한중친선협회는 그냥 1억 5000 그대로 가고, 지금 1억 5000으로 와 있나요?

○신낙균 위원 예.

○이춘식 위원 예.

○소위원장 문학진 어디 있어 한중친선협회.

○홍정욱 위원 예, 다섯 번째……

○소위원장 문학진 이거 그냥 1억 5000으로 가고 21C한중교류협력위원회?

이거 뭐 위원회로 돼 있고 협회로 돼 있고 말이야 중구난방이야.

이게 지금 2억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괘씸죄가 있어요.

○신낙균 위원 부정한 게 있어요.

○소위원장 문학진 이것은 1억으로 갑시다, 1억.

○이춘식 위원 이것도 1억 5000으로 금년하고 맞춰 줘야지……

○신낙균 위원 이럴 때나 한번 국회 권위를 세워야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그래요, 맛을 좀 보여 줘야지요.

자, 21세기한중교류는 1억.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1억이요?

○소위원장 문학진 1억. 그다음에 한중친선협회는 1억 5000 그대로.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앞서 실크로드재단, 홍 위원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것 당초 5억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왔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을 했고 예결위에서 나머지 3억이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맞아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래서 금년 2009년도의 경우에는 개인 사비라든가 협찬을 얻어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아시아, CIS 국가들 상대로 해 가지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설명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신낙균 위원 그래도 처음 지원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있고, 괜찮아요? 제가 잘 몰라서……

○소위원장 문학진 한아랍소사이어티는 10억이네, 계속 뭐 10억대네. KAS 12억 5000, 10억, 10억.

○신낙균 위원 3번은 왜 그래요?

○이춘식 위원 애초에 12억이니까……

○신낙균 위원 아니, 여기를……

○홍정욱 위원 보니까 한아랍소사이어티는 좀 특수한 성격을 띄어서 다들 보니까 크게 출범을 시켜서 그랬던 것이고요.

○신낙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홍정욱 위원 저는 실크로드재단은 작년에 사비를 들여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분명히 작년보다는 저희가 감안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2억이라는 액수로 출발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셨거든요.

○소위원장 문학진 작년에 우리 2억으로 결정했구만.

○홍정욱 위원 예, 2억으로 했다가, 여기서 2억을 삭감했나요? 작년에 3억을 삭감했었나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실크로드요?

○홍정욱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우리 위원회에서 2억 깎았고요, 나머지 3억은 예결위에서……

○홍정욱 위원 예결위에 가서 3억이 날라간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소위원장 문학진 여기서 2억이 돼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여기서 3억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아, 3억이 돼 가지고 예결위 가서 다 없어졌구나. 여기서 3억이 됐었단 말이지?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그래서 대상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KAS도, 한아랍소사이어티 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금액이 가고 있는 것이고 실크로드재단 대상 국가들이 CIS국가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 숫자는 많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업을 우리가 보고받을 수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보고받을 수 있지요.

○신낙균 위원 우리가 뭐든지 하기만 하고 평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애매한데 지금……

○소위원장 문학진 내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보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활동하는 게.

○신낙균 위원 장님 뭐 코끼리 만지듯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소위원장 문학진 그런 점은 있지요.

○홍정욱 위원 작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강력히 옹호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소위원장 문학진 아니에요.

○신낙균 위원 소사이어티에 뭐 있어요?

○소위원장 문학진 작년에 아무것도 몰랐지.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내용을 몰랐지.

○신낙균 위원 그런데 한일협력위원회는 244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홍정욱 위원 그냥 한번 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신낙균 위원 그래요? 에누리 안 하고 44 그것을 계속 달고 가는 거예요?

○소위원장 문학진 자, 이 실크로드재단은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받아봤는데 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3억 1500, 지금 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244 이런 것 하지 말고 1500 떼어 버리고 3억 갑시다. 작년에 우리 3억 했었으니까 3억!

○홍정욱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는 모든 기관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검토한다라는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혹시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따로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래요.

○신낙균 위원 실제는 뭘 어떻게 했는지 필요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문학진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정당회의요.

임 실장,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1억 5000와 있거든. 이것 설명할 거 없어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아시아정당회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의용 전 의원께서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의원으로 재직하시면서 아시아 제 정당의 네트워크를 묶은 사업입니다. 아시아를 우리의 외교적인 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당을 통해서 하시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 의원께서 1.5억 원 신청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정의용 전 의원이 1억 5000 신청한 거예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더 달라고 안 그럽디까?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1억 5000 맞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1억 5000입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예.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신낙균 위원 한일협력위원회는 누가 뭐를 하는 데고 한일친선협회중앙회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데인지 비교해 봤으면 해요. 왜냐하면 신청 액수가 완전히 더블이거든요. 여성들은 1600 이렇게 소박하게 나가는데요.

○소위원장 문학진 한일여성친선협회에 1600이라서 지금 화나신 거야.

○신낙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양심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문학진 한일협력위원회,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일친선협회중앙회가 뭔지 빨리 설명해 봐요.

○홍정욱 위원 국제교류기금에서 해야지요. 이것 국제교류기금에서 나가는 돈 아니에요? 설명하세요.

○소위원장 문학진 설명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실장 박상배 기획실장입니다.

한일협력위원회,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일친선협회중앙회는 지금 제가 세부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국제교류기금에서 돈을 주면서 이 위원회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주는 거지요, 매년 주던 거니까?

○소위원장 문학진 언제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내요?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심의 오늘 끝내지 말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하자는 얘기예요?

○정동영 위원 이것 깎아 버려야 돼.

○신낙균 위원 이름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는 지원액이 적으니까……

○소위원장 문학진 임 실장, 이 내용 몰라요? 한일협력위원회,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신낙균 위원 여성은 1600이니까……

○소위원장 문학진 아니, 그게 왜 1600인지 내용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정동영 위원 10%씩 다 깎아 버려요.

○신낙균 위원 같은 한일 관계인데 하나는 244이고 하나는 125이고, 완전히 더블이에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10% 깎으시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제가 한번 민간단체들을 전부 소집해서 예산결산소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럽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김영옥 연구소, 이것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인데 오늘 보이지 않네?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김영옥 연구소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이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래 가지고 지금 얼마예요? 이것 이미경 위원이 보내 왔는데, 이 내용 잘 아는 사람?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 강남훈 사업이사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2009년에 신규 사업으로 돼 가지고 5억 반영됐지요? 그렇지요?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 강남훈 예.

○소위원장 문학진 그다음에 2010년에 6억 2200만 원 책정됐네, 그렇지요?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 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런데 원래 외교부하고 기획재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기를 2010년 예산을 10억으로 수립을 했었다 이 얘기네. 그러니까 10억 빼기 6억 2200 해서 그 차액 3억 7800을 증액해 달라 이런 요구인데, 어때 보여요?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 강남훈 경과를 설명드리면요, 작년에 5억 예산이 배정이 되고 난 뒤에 UCR 측하고 저희 재단하고 MOU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그리먼트가 체결이 안 됐습니다. 쟁점이 한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재미동포 사회모금 100만 불 나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다시 UCR 측에 초안을 보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배정된 예산 5억을 MOU를 체결하고 난 뒤에 지원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직 업무 체결이 안 돼서 사실 올해 예산 5억 원은 그쪽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년 예산을 6억 2200이라도 기편성을 해 놓은 것은 저희 이사장께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 올해 예산이 실질적인 사업비를 보면 22억이 줄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고 40억 짜리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기존 사업비들을 줄여 가지고 그 사업비 22억을 반영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이 실제적으로 22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가운데서도 하여튼 이쪽에서 빼고 저쪽에서 빼고 해 가지고 6억 2200을 일단 예산 반영을 해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저희들 보고 3억 7800을 염출해서 예산 10억을 맞춰라 이럴 것 같으면 사실 저희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작년에 5억, 10억, 15억 이야기할 때도 단계적으로 전액 국고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예산 사업비에서 돈을 떼어 가지고 10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10억을 지원해서 그 사업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래서 어렵다 이거예요?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 강남훈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열악한 저희 재외동포재단의 여러 가지 예산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금 국회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내년에 10억 원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알았어요. 어렵다 이거지?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 강남훈 예.

○소위원장 문학진 그다음에 임 실장, 시애틀 총영사관 샛별문화원 도서관 건립 보전 이렇게 나와 있네. 이 내용 알아요? 이것 아는 분?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 강남훈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2억 달라 그러는데 이것 설명해 봐요.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 강남훈 샛별문화원에서 도서관을 새로 증축을 합니다. 도서관 증축을 하면서 미국 주정부로부터 30만 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는 집행이 됐고 나머지 절반은 아마 내년 4월까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재단이 한 50만 불 정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재단에서 50만 불을 지원하는 것은 힘듭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그쪽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식 위원 이것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지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금병목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 저희들의 숙원사업 취지라든지 원 목적에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공공기관 차원에서 약간의 성의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김충환 위원이 이것을 반영을 해 달라 그래서 2억을 이렇게 써 가지고 왔거든요.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금병목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에서 이사회를 거치고 검토해서 원 취지에는 맞지 않은 사업이다, 숙원사업 최대한도가 한인회관이라든지 한인문화회관 건립 건인데 그것도 최근 들어서는 자주적 노력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하자,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되어 가는데 한인사회 대표기구라고 아니할 수는 없지만 민간단체에 의한 도서관 설립에 50만 불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지금 그런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래서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금병목 예,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김 위원님으로부터 조금 성의 표시를 하면 어떠냐 하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전달받았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금병목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김충환 위원한테 잘 설명해 주세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금병목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다음이요!

○이범관 위원 YTN이 지금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 사업을 7년간 15억씩 해 놨는데 13억 50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15억

가지고 한 것도 3억 원 밑지고 있답니다. 밑진 것이나 좀 보태 달라 그래서……

지금 위성방송하는 데가 YTN밖에 없잖아요? 위원장님한테도 얘기했다고 이게 증액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위원장 문학진 그런 것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YTN에서 전화가 왔습디다.

○이범관 위원 15억으로 해서 3억을 밑지고 있는데 또 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진 거나 보충해 달라는……

○홍정욱 위원 이런 것들이 과정상 문제가 없는 절차입니까? 예결소위에서 이렇게 위원들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문학진 그래서 나는 이게 다 올라와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죽 봐도 없네.

○이범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으로서 증액 요청을 하는 겁니다.

○홍정욱 위원 그런데 저희 외통위 위원들이 다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범관 위원 모르지요.

○홍정욱 위원 기본적으로 외통위 위원님들은 다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문학진 어차피 전체회의에 가서 보고하고 스크리닝하니까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거를 것은 거를 수가 있지요.

○홍정욱 위원 소위 심사 후에 위원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소위원장 문학진 문제는 없을 걸요.

○이범관 위원 이것 하나하고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것인데요. 제가 우크라이나 대사관 두 번 가 봤잖아요.

대사관 신축하는 데 100만 불씩 3년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국유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관저하고 청사를 1300만 불에 신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땅이 다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국유화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건물을 짓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사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저희 대사관이 평가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지금 한 300만 불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는 1300만 불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건물을 사유화를 통해서 짓기 위해서 300만 불을 추가로 더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1300만 불이 있는데 3년 걸리다 보면 물가가 상승해서 300만 불이 아니라 500만 불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왕 해 주는 것이면 한꺼번에 300만 불을……

100만 불인가 얼마씩 3년간 주기로 했다면서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이범관 위원 이것을 이번에 300만 불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관저 신축이라고 그랬어요?

○이범관 위원 대사관하고 관저요.

1300만 불이 이미 있어요. 300만 불이 부족한데 이것을 100만 불씩 3년 동안 주겠다 이랬는데 그러다가는 3년 후에 1500만 불이 될는지 500만 불이 될는지 모르니까 이왕 주는 거 한꺼번에 해 달라 이런 요지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낙균 위원 어차피 나가야 되는 돈인데, 어떤 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어요.

○홍정욱 위원 오늘 심사자료에 안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6, 7건 있지요? 이것 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소위원들 방에 전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홍정욱 위원 그리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다시 민간단체 지원으로 돌아가서요.

기본적으로 지금 불투명성도 문제지만 국제교류기금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방증이 있거든요. 이것은 방만한 관리이고 경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 예산안에 6억 6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저는 다 증액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억 원하고 1500만 원 삭감을 해도 결국 1억 150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좀더 삭감을 해서 좀더 타이트한 관리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억 6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의 절반 정도를 삭감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액 삭감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절반 정도, 한 3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0%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할 필요없이 6억 6000 전액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을 삭감하시든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6억 6000이라면 그게 어디어디에 나누어지는 거지요?

○홍정욱 위원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6억 6000 올해 증액해 달라 그랬는데 이런 방만한 경영을 하는데 저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억 6000이라는 액수가 크니까 다 삭감하시는 것보다 조정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강력히 권고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신낙균 위원님, 의견 어떠세요?

○신낙균 위원 특별히 별다른 의견이 없어요.

○소위원장 문학진 홍 위원님 지적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홍정욱 위원 50% 삭감해서 3억 2000 정도만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그럽시다. 한 50% 삭감합시다.

구 수석,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3억 2000 삭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깎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홍정욱 위원 아까 1억 1500만 명기를 하셨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러면 그 결정권을 다……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이사 김성엽 우리 국제교류재단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 당국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교류재단 손을 떠난 것입니다.

○신낙균 위원 여기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설명도 못 하시니까 그냥……

○소위원장 문학진 아니, 그런데 여기서 하려고 해도 한일, 한일, 한일 이것 설명하라는데 설명 못 하고 앉아 있잖아요!

○신낙균 위원 비슷한 단체일 텐데 이렇게 100%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홍정욱 위원 나중에 추가로 위원회 사람 다 불러다가 회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성도 부족하고 전문인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잘 모르겠고요.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먼 돈을 뿌려서 되겠습니까?

○신낙균 위원 시의에도 안 맞고요. KAS 같은 것도 단위가 확 달라지고요.

○소위원장 문학진 뭘 알아야 여기서 어디서 얼마를 깎고 하지.

○이범관 위원 홍 위원님한테 맡기지요? 내용을 보니까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적당히 조정을 해서……

○소위원장 문학진 그래요. 이것은 우리도 다 공감을 하는 바니까요.

○신낙균 위원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게, 시민단체니까요.

○소위원장 문학진 다음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러면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서 금년도 증가액 6억 5900만 원의 절반인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고 홍정욱 위원님께 위임하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2건입니다.

교수직 및 강좌운영 건입니다.

이미경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재단은 국제경제위기 및 고환율을 이유로 2009년 7월 미국 미네소타대, 터프츠대 등 7개 해외 대학에 대한 한국학 지원 약속을 취소했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환차손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낙균 위원 누구나 공감하고 의문 제시하는 것이니까요.

○홍정욱 위원 예, 제도개선!

○소위원장 문학진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은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김충환 위원께서 일반회계 예산을 기금사업으로 과다하게 이관하는 것은 기금의 잠식을 가속화하므로 기금의 재정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사업 이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외교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사업을 선정할 때 외교부와 국제교류재단은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부족한 예산사정과 국가재정법상 기금과 예산의 통합운용 방침

을 고려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관사업을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축소한다는 입장하에서 2010년 예산안 편성 시에 2009년도에 151억을 2010년에는 116억으로 축소하였습니다. 향후 계속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의견 주세요.

별다른 의견 없으면, 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마지막으로 이범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외동포재단 예산 중 YTN 지원예산 증액 건입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증액 300만 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매년 100만 달러씩……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매년 100만 불인데 일시불로 300만 불 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이것은 국고채무부담금으로 예산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음에 YTN 지원예산은 금년도에는 15억이었는데 2010년도는 13억 50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를……

○이범관 위원 YTN이 15억 해서 3억을 밑졌대요. 밑지지 않게 해달라 이거지요. 18억으로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위원님들 동의하시는지……

○홍정욱 위원 전액 올려 달라는 대로 올려줍니까? 13억 5000에서 15억으로 올라왔잖아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제가 YT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TN이 세계 각국에서 24시간 우리나라 공연예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YTN에서 위성방송을 위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게 18억 원 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YTN이 재외동포들에게 고국의 원타임 뉴스를 제대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18억 증액시켜 주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러면 예산조치가, 정부출연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정부출연금을 4억 5000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4억 5000을 재외동포재단 출연금에다가……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더 주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줘야 되는 그런……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금병목 그건 사업이사가 얘기 좀 해 보지요, YTN 지원요청.

○이범관 위원 출연금 늘려주는 건데 뭐 특별한……

○이춘식 위원 동포재단 돈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 강남훈 예, 출연금 늘려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러니까 정부예산에서 4억 5000을……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정부예산, 일반예산에서 4억 5000을 동포재단에다가……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출연금 4억 5000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자, 됐고.

그다음 우크라이나는 다 정리됐나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우크라이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300만 불 증액시키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자, 그러면 됐지요? 일단 됐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소위원장 문학진 오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를 통하여 삭감조정 또는 증액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이걸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춘식 위원 화장실 좀 가야 돼요.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문학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를 통하여 삭감조정 또는 증액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횡으로 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라고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여권발급 건수를 419만 건으로 통일할 경우에 금액이 312억 원, 세입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감액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선정 신규사업에서 반액을 삭감해서 1억 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글로벌코리아 미래전략 네트워크 강화 신규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에너지·녹색성장 외교강화 주요국 정책사례 발굴 및 분석 사업 2억 삭감, 국제기구와 녹색성장 패러다임 확산공동주도 2억 삭감, 에너지보좌관 초청연수사업 4억 삭감, 합 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외교홍보역량강화 사업 중에 대국민 직접 접촉 홍보활동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어웅변대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세출 부문의 삭감액은 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문 증액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여권 제조 및 개선 사업에서 여권발급 건수를 419만 건으로 통일할 경우에 금액은 189억 4700만 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위해서 신규파견인원 3명을 증가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5명의 신규인원을 파견할 경우에 소요되는 금액은 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자회담 참가 등 북 핵문제 대처를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사업 예상 북한이탈주민 3000명 기준을 3600명으로 확대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우리 주일대사관에 네트워킹을 위한 사업 10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사업을 2009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금액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3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인건비를 7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에 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외동포재단 출연금 중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에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국어뉴스 세계 위성방송망 구축—YTN 사업입니다—에 4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합 합계 228억 4800만 원이 증액돼서 일반회계 세출 중 감액과 증액 부분을 감안했을 때 216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채무부담행위입니다.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청사·관저 국유화에 3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쪽인 4쪽의 기금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 증가액의 50%에 해당하는 3억 3000만 원을 감액키로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홍정욱 위원님께 위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도개선 항목입니다.

한 장짜리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관련해서 제도개선은 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순방 사업 관련해서 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순방 사업 예산의 특수활동비 항목을 예산집행기관인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연례적 예비비 집행 관행을 지양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셨습니다.

다음 글로벌 인적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해서 글로벌 인적인프라 구축의 성격상 동 사업을 문화외교국에서 총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적합한 총괄기관을 재선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추가하셨습니다.

다음 제주평화연구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민간재원 50억 원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셨습니다.

다음 국제교류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운영비 워

싱턴사무소 임차료 항목과 관련하여 국제교류재단의 예산절감 방침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정을 이유로 한 워싱턴사무소 유지는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재단은 워싱턴사무소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부대의견 첨가한 게 몇 개 더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명기가 안 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아까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이게 다입니다만……

○홍정욱 위원 제가 부대의견을 첨부해 달라고 몇 개 더 했거든요.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에도 기존 경비를 소요하는 사업을 신규예산으로 하지 않을 것, 변형해서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붙였고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몇 쪽이신가요?

○홍정욱 위원 13쪽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기본경비로 집행해 오던 예산을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필요……

○홍정욱 위원 이게 여기가 아니고…… 기존 경비로 집행해 오던 일들이 있습니다, 유엔 참여하고 이런 부분.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홍정욱 위원 그것은 기존 경비로 그대로 계속해야 되고 이번 신규예산은 반드시 새로운 사업에 국한해서 집행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조건으로 걸었고, 그리고 15쪽의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프로젝트 이후에 기본경비로 통합하라는, 3년 후에 기본경비로 통합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출판사업 1억 원이 반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것은 항목에는 들어가 있고, 전체를 다 넣어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문학진 아까 하기로 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하기로 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하기로 하셨어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는, 보고사항에는 구체적인 민간단체 명칭은 안 나와요.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안 나오니까 거기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지금 홍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정서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된 내용 중 증액된 항목에 대해서 외교통상부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예, 이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외교통상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심의하여 조정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교통상부 기획조정실장과 산하단체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문학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통일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통일부에서는 홍양호 차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앞서 외교통상부와 같은 방법으로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보면서 한 항목씩 설명해 주기 바라며 이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지요

○전문위원 허영호 전문위원입니다.

횡으로 작성된 자료를 중심으로 통일부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회의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 본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감액 16건 정도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은 11건 정도, 제도개선 3건으로 정리를 하여 보았고 그다음 하단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증액 4건, 제도개선 1건, 항목 조정 1건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감액사업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통일정책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14억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통일정책 커뮤니케이션 사업 중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8억 6300만 원은 비핵 개방 3000 구상의 기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기존의 홍보와 달리 별도의 홍보사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말씀과 외교부의 홍보 예산과 비교해서 홍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낙균 위원님과 홍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정부 측.

○통일부차관 홍양호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있는 예산으로 실제 홍보예산이라 하지만 주로 홈페이지 관리나 블로그 PCRM 입력 그리고 홍보책자 하나 정도 만들면 돈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특히 무가지라든지 또 TV매체라든지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설명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많이 추가돼서 저희들이 특별히 기재부에 설명을 드리고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홍보라고 명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홍보예산으로 하려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요즘 특히 무가지라든지 매체홍보하는 데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가능하면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우리 홍정욱 위원님이 뭘 지적을 했던데요.

○홍정욱 위원 대북 정책 홍보 필요성은 당연히 아는데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 홍보하는 데 갑자기 이렇게 8억 3000이나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 더구나 외교부 홍보비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제시하신 명분과 이유는 사실상 이 정도로 거의 2.5배를 증액하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 입장은 이해하지만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자, 또.

○이춘식 위원 제 입장은 통일부가 워낙 부처 중에 제일 예산도 어렵고 한데 말씀 들었지만 어렵게 기재부에서 딴 것을 통일이 정말 국가적 대사인데 우리가 너무 기를 죽일 필요가 있느냐, 좀 원안대로 살려줘서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게 해 주는 게 안 좋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범관 위원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평소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정부 정책에 남북관계나 통일관계를 공식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처가 통일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교부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국정원은 하더라도 국정원이 앞장서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통일문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상하게 정부가 꼭 통일에 반통일적인 경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만날 다른 의견을 가진 신문 주장, 전체 언론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통일부에서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여야 간에 쟁점이 돼서 찬반이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이외에 다른 분야의 통일정책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통일부가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대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 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부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통일부가 왜 존재하고 있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정부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는 통일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수도 없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지요.

그랬는데 비핵 개방 3000 그 내용을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홍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홍 차관?

○통일부차관 홍양호 아니,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홍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내용을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남북 경제공동체 구성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홍정욱 위원 그게 비핵 개방 3000이지 뭐예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비핵 개방 3000을 명시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경축사 때 나왔던 새로운 이명박 정부의 통일관 이런 사항을 좀더 국민들에게 와 닿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비핵 개방 3000을 명시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여기다 왜 그렇게 써놨어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여기 검토의견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용은……

○전문위원 허영호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것은 신낙균 위원님, 홍정욱 위원님 대체토론하신 것인데요.

○홍정욱 위원 첫 사항부터 저도 그렇게 오래 끌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제품은 훌륭한데 마케팅이 부족해서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홍보만 늘린다고 다 호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초당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범관 위원 내가 주장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게 비핵 개방 3000 홍보하라고 예산 주라는 게 아닙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원래 저희들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아닌데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이런 내용이 아니냐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고 설명드린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홍 차관님, 그러면 이것 약속할 수 있어요?

평통에서 평통위원들 교육용으로 만들어서 수만 부 만들어서 배포했던 자료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인가 하는 그것, 알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대북정책 바로알기는 통외위에서 바로 수거한다고 지난 번 회의 때……

○소위원장 문학진 글쎄 수거한다고 답변은 했는데, 그런 따위의 홍보책자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약속할 수 있어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소위원장 문학진 만약에 그런 비슷한 홍보 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것을 약속하시면……

○통일부차관 홍양호 지난번에 평통에서도 그때 전체회의 할 때 옆에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수거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김대식 처장께서 저한테도 약간 오버된 게 있으니까 앞으로 통일부하고 잘 호흡을 맞춰서 통일부 입장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고……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니까 조금 이따 평통사무처장 올 테지만 어떻게 그런 홍보 인쇄물을 만들면서 실무 총책임 사무처장이 그것을 보지도 않고 내느냐 말이야.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때 아마 출장을 갔었던 모양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출장을 가더라도 그렇지.

○이범관 위원 자꾸 이유대지 마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반드시 그것은 훑어 봤어야지, 그것을 자기가 못 봤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홍 차관, 앞으로 뭘 만들든지 간에 반드시 그것을 책임지고 감수를 하란 말이에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 조건 달아서 갑니다.

다음.

○전문위원 허영호 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연구센터 설립 관련입니

다.

이 부분은 6억 5100만 원 순증이 된 부분이고 그 내용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과 같은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현재의 조직형태로는 무리인 상황으로 감액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신낙균 위원께서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정부 측.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 부분은 그동안 상임위 때 많은 위원들께서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정책개발도 하고 조사연구도 하고 그렇게 계속 그동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수차례.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 의견을 받아서 기재부와 상의해서 앞으로 후원회에 이런 연구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고 기재부에서도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나오니까 예산을 증액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오히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을 증액하라는 요구가 증액 사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하여튼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요구한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게 이런 거였지요. 별도의 전문적인 연구전문 인력 충원이나 시설 확보 같은 계획 없이 이런 연구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확보되어야지 그냥 기관만 먼저 설치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 예산을 정착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비로만 한정해서 통일부에서 직접 집행 관리하도록 하면서 통일연구원 같은 기존의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 뜻이었습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상임위에서 나왔던 의견을 가지고 기재부와 상의한 당초에는 저희가 연구인력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사람 늘리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들어서 반영되지 않았는데 여기 상임위 심사소위에서 연구인력을 최소한 1명 정도를 허용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당초 상임위에서 요구한 대로 그렇게 되는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연구인력 1명 정도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낙균 위원 둘 중의 하나여야지요. 연구인력이 있는 연구센터든지 연구인력이 없으면 연구센터가 필요 없으니까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체계가 안 서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북한이탈주민후원재단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연구기능을 넣으라고 상임위에서 많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 과제로 법제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정책개발이나 조사연구, 교육 이런 것은 후원회에서 하라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러면 통일연구원은 이런 것도 못 합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통일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센터가 아닙니다.

○신낙균 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것도 한 분야로 연구원이 할 수 있지 않는가, 건물과 연구소가 그렇게 큰 데……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렇게 되면 인문사회연구회에서 별도의 예산을 또 통일연구원에 줘야 됩니다, 동일한 예산을.

인문사회연구회에서 예산을 증액,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전문적으로 하는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라서 법정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라고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고 기재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신 위원님?

○신낙균 위원 그러니까 안 맞지요. 사람 없는 집이나 그런 빈 하드웨어가 왜 필요한지, 왜 있을까?

그런 게 있으려면 뭐가 동시에 가든지 동시에 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겠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위원님, 이 예산에서 연구인력 1명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다른 위원님들은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신낙균 위원님을 홍 차관이 설득을 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통일부차관 홍양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기재부에 예산 신청할 때 사실은 연구

인력 2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항상 사람 늘리는 데 부정적이어서 사람을 넣어 놓지 말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용역을 하라, 그래서 타협안으로 이게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좀 허용해 주신다면 이 돈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원을 1명 정도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낙균 위원 범위 내에서 연구원을 쓰겠다, 그렇게 전용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여기서만 허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해가 되셨나요?

○홍정욱 위원 한번 기회를 줘 보시지요. 기재부에서 연구인력을 안 준다니까.

○신낙균 위원 이런 게 참 균형 없는 예산 편성이에요. 센터를 설립하고 거기 안에서……

○홍정욱 위원 깎으실 거면 안 하는데 이제 겨우 두 번째인데……

○신낙균 위원 두 번째니까 인심 쓰라고요?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신낙균 위원님이 얼추 양해하신 것으로 알고 넘어갑시다.

다음.

○전문위원 허영호 3번이 되겠습니다.

하나원 청사관리 외부위탁 사업 관련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4억 600만 원인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수의계약으로 3년째 같은 업체가 맡고 있는데 공개입찰로 변경하고 금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구상찬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정부 측.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 부분은 하나원이 그동안 국가보안시설이라서 사실 수의계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제도개선을 하라고 정부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보안이 유지되는 업체를 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1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국내의 보안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몇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윤미량 11월 11일자로 이미 조달청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지금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홍정욱 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1년 단위로 해서 3년까지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제한경쟁입찰로?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왜냐하면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런 업체가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보안업무를 맡을 수 있는 수준의 능력 있는 업체에다가……

○이범관 위원 보안시설은 따로 되어 있어요. 특수보안시설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제대로 감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국가보안시설이라고 다 경쟁입찰 시켜 갖고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면.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래서 능력 있는 업체 중에 제한적으로, 모든 데 오픈하지 않고 능력 있는 곳을 한 몇 군데 선별해서 하게 조달청에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좋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호 그러면 3번은 제도개선으로, 1번, 2번은 원안 유지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개성공단 법제 구축 사업입니다.

2010년 예산은 2억 71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문번역 비용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정옥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이 사업은 통일법제 구축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낙균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홍 차관.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 문제는 그동안 개성공단 법제를 구축한 내용을 해외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영문번역을 했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3600만 원에 8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중에서 조달청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전문적으로 영문을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 예산 내용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법제 구축은 심천경제특구도 보면 한 300여 개가 넘는 규정이나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해서 사실 남쪽에서 법안을 만들어 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43개 규정이나 시행세칙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

들이 법제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통일법제 구축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업무 자체는 다릅니다마는 만약에 허용해 주신다면 통일법제 구축 사업의 사업비로서 개성공단 법제 구축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만 해 주신다면, 다만 5000만 원 정도라도 삭감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저도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법제구축 사업에서 여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한 5000만 원……

○소위원장 문학진 홍 차관의 의견이 합리적인 것 같네요.

○신낙균 위원 예, 대안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영문번역이 필요하다는 게 뭡니까? 법제를 구축하는데 무슨……

○통일부차관 홍양호 지금 개성공단에 관련된 규정 시행세칙을 국제공단으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영문화시켰습니다. 영문화 책자를 만드는 데 그 비용이 비싸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실제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8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36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렇게 하고 감액하는 것 받아들이고요.

○홍정욱 위원 5000 삭감?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5000만 원 삭감하고 대신 통일법제 구축 예산을 이 사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소위원장 문학진 오케이.

다음.

○전문위원 허영호 다음은 5번 개성공단 RFID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2010년 예산은 1억 3400만 원으로 2009년에 비해서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상찬 위원님께서 시스템을 설치한 지 3년 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 내용은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1년간은 그 개발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마는 이후부터는 주관부서에서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지보수 비용으로 진행이 됐고 다만 금액이 감축된 것은 그동안 태그라든지 구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절약 차원에서 감액이 됐는데 시스템 유지보수는 정부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간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지만 08년부터는 정부가 직접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무슨 시스템이야?

○통일부차관 홍양호 자동인식시스템입니다.

○전문위원 허영호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그러니까 무선으로……

○통일부차관 홍양호 자동차 들어가고 나갈 때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차단기 올려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영어로 다시 한번 해봐요.

○전문위원 허영호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홍정욱 위원 RFID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차관님도 잘 아시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홍정욱 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의혹과 의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1년 유지보수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간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저는 심각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상찬 위원도 아주 복잡한 문제라 위만 잠깐 건드린 것인데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RFID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그 점 인지하시고 진행하십시오.

○통일부차관 홍양호 알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러면 감액 안 하고 현상유지예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감액 이미 됐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호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액이 됐지만 여기서는 지금 감액이 안 됐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감액이 되면 이 시스템……

○신낙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상유지.

○전문위원 허영호 예, 원안.

○소위원장 문학진 다음.

○전문위원 허영호 다음에 6번,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2010년 예산액은 25억 4900만 원으로 22억 3600만 원이 2009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체토론 내용은 현재와 같은 입시중심의 우리나라 교육제도하에서 일선학교에서의 효과적인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며 또한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검증 방법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을 신낙균 위원님과 이미경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와 교과부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구상찬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 부분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서 통일부가 초·중·고등학교에 통일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사회·도덕 교사님들하고 계속 워크샵을 하면서 학교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통일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한 보조자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동안 계속 논의해 왔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과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통일부가 여러 가지 보조교재를 만들어 주면서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학교에 IPTV를 보급을 합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로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베이스해서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부터 전 학교에 지금 보급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픽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급하도록 이미 교과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하도록 업무는 분장이 돼 있고요.

지금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이 32편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30편을 좀, 총 한 50편과 그리고 통일포럼 한 10개 정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디오테이프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YTN이라든지 SK라든지 LG의 통신회사에 입력이 되는,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보고 싶을 때 뽑아서 학교 수업 시간에 IPTV……

○홍정욱 위원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TV통일포럼이 뭐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IPTV에 활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교재?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소위원장 문학진 신낙균 위원님.

○신낙균 위원 IPTV 활용에 대한 세부사업이 없어서 좀 이해가……

○통일부차관 홍양호 IPTV는 교과부에서 내년부터 전 학교에서 다 합니다. 그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통일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합니다.

○신낙균 위원 그러면 TV통일포럼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것도 그런 보조 교재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신낙균 위원 그것이 중복되거나 뭐 이런 것 없이?

○통일부차관 홍양호 아닙니다, 보조교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과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쪽에서 하게 한다 이거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거기에서 통일부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통일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통일교육지원법상에도 통일부가 이런 학교·사회에 대해서 통일교육 자료들을 보급해 주도록 그렇게 법상에 있습니다.

○이춘식 위원 이것은 통일부·교육부가 공개적으로 통일의 필요성,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안 시킬 것 아니에요.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소위원장 문학진 홍 차관, 이것을 말이에요. 교재가 한번 지금 돼 있는 게 있나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아닙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소위원장 문학진 이게 내년부터인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여기에 참여하는 데는 학교 교사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해서 합동으로 해서……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교재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한번 좀 보내 보세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어느 정도 좀 보게……

나는 항상 걱정되는 게 민주평통, 내가 아까 얘기한 그런 홍보물 그런 게 또 나올까봐 항상 걱정이에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소위원장 문학진 만약에 자칫, 그 만화도 희한한 만화를 그렸거든요. 지난 10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진짜 엉터리인 걸로 만화도 그렸는데 우리 초·중·고생들이 만약 그 비슷한 교육을 받으면 이건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재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세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학교·사회에서는 그런 식의 교재를 할 수가 없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내용과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검증된 교과서의 내용을 동영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신낙균 위원 그렇게 책임 있게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이범관 위원 오히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북침이니 말이에요, 젊은애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잘못 돼 있잖아요, 인식이 잘못돼 있는 거 이거 안 고쳐 주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이 걱정하시는 그런 쪽에 머리 쓰지 말고 진짜 정상적으로 우리 남북관계라거나 6·25전쟁이라든가 모든 역사적 현실을 제대로 좀 인식할 수 있게…… 지금 잘못돼 있는 인식이 많아요. 통일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하는 데 써야지 진짜 일방적으로 다른 저의 갖고 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오히려 그쪽을, 정말로 제대로 된 통일교육이 우리 2세대에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알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래서 IPTV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IPTV는 교과부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내년부터 보급을 합니다. 그것은 교과부에서 합니다.

○신낙균 위원 이해할게요.

○소위원장 문학진 자, 갑시다.

○전문위원 허영호 7번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개발사업인데 2010년 예산액은 4억 8000만 원이고 2009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이고 연구용역의 주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활용이 모호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구상찬 위원님과 정옥임 위원님이 주셨고, 그리고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와 동일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것과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연구자가 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홍정욱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것은 주의해야 되겠네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 규정에 의해서 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2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경쟁계약으로 저희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지금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홍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이 용역을 수행할 때는 참여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내부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자기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이 있을 때는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은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제도개선은 잘 하셨고요.

그런데 정책연구개발, 이번에 올라온 예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연구지원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홍정욱 위원 앞서서도 북한이탈주민 연구 6억 5000이고 통일미래비전 있고 통일독일 연구하는 그거 뭐 행사지만 그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 연구예산이 있으면서 이 정책연구개발도 또 별도로 필요합니까?

북한이탈주민하고 미래통일전략하고 외국의 사례 연구하는 것 말고 뭐 더 연구할 게 있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사실은 과거의 정책연구개발 항목이 생기게 된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책 연구기관들이 해당 부서 소속기관에 있을 때는 정책연구개발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이 총리실에서 관장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넘어가면서……

○홍정욱 위원 자, 오케이.

그 배경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정책연구개발 용역 리스트 차관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회에 제출한 것,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나중에 나온 결과하고 다 다른 것 알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통일부차관 홍양호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계속 수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 그리고 또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솔직히 저는 이 예산 다 쓰려고 용역 준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기존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연구비가 굉장히 몇 십억씩 늘었는데 이 4억 8000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좀 우리 통일부가 성의를 보여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용은 중장기적이거나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연구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정책연구사업비 예산은 그대로 좀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계획된 연구용역 과제가 그대로 진행이 돼서 내년에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것 수정을 저희들이 현실성 있게, 내년 초에 확정할 때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래서 내년 연말에 가서 봤을 때는 처음에 제시한 것들이 용역이 된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걸로 하실 수 있겠어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 부대조건을 꼭 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선정된 과제와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동일해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도개선 그 부분 추가해서……

○통일부차관 홍양호 내년 초에 저희들이 용역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과제가 결정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호 위원님, 그러면 부대조건을 선정된 과제하고 결과가 동일하고 그다음에……

○홍정욱 위원 심사위원들이 참여하지 못 하도록……

○전문위원 허영호 예.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래서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호 그러면 조정의견은 제도개선으로……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문학진 자.

○전문위원 허영호 5쪽입니다.

8번 통일정책추진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액은 16억 3300만 원으로 2009년에 비해서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올해 특수활동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며 본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남북회담 예산이 내년에 삭감된 상황에서 증액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는 이러한 의견을 구상찬 위원님과 박선영 위원님께서 주셨고 그다음 통일정책추진활동사업 예산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상찬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통일정책추진활동사업은 현재 국가정보원법 3조1항5호의 기획·조정 업무에 해당이 돼 가지고 정보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감액 의견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제도개선 정도 의견을 낸다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구상찬 위원이 지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허영호 예.

○홍정욱 위원 이게 매년,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것은 정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드리기가 좀, 이것은 국회하고 정부하고 총괄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제도개선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이야기하기는……

○소위원장 문학진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디서 쓰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것은 정보활동비라든지 공개할 수 없는 사업 예산……

○소위원장 문학진 국정원?

○통일부차관 홍양호 아니, 통일부가 사용하는 겁니다. 통일부인데 국정원을 통해서, 기재부에서 하는 것은 일반 예산이고 국정원에서 내는 것은 정보 예산이고 그 심사는 정보위원회에서 합니다. 정보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예산결산특별위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총액으로 통과하도록 국회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렇게 돼 있어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제도개선 이거 하나 지적을 해 놔야 되겠네. 우리가 권한이 없다면서요?

○이범관 위원 무슨 제도개선을 한다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허영호 그러니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사하도록……

○이범관 위원 아니, 그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걸 우리가 한다고 뭘 그게 제도개선이 됩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법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되지요.

○이범관 위원 되지도 않는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국회법을 바꾸지 않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법 개정 필요구만.

○이범관 위원 그것은 특수한 사항의 예산이니까 이런 것은 공개하지 않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던가요.

○홍정욱 위원 모양 자체는 좋지 않지요.

○이범관 위원 그런데 방법이 없지요. 어느 나라나 특수한 게 다 있는 건데, 집안에서도……

○홍정욱 위원 안 고치더라도 지적은 하고 넘어가는 게……

○이범관 위원 아니, 지적을 해도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해야지요. 정보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자 그러는 게……

○홍정욱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 예산으로 올라오지 말아야지요.

○이범관 위원 아니, 특수 사정에 의해서 올려놓은 것이니까, 집에서도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니까 일단 지적은 해 놔봐.

○이범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할 걸 해야지 지적이 될 걸 해야지……

○이춘식 위원 소위원장님이 하시라니까 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문학진 자, 넘어가요.

○전문위원 허영호 그러면 위원장님,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이범관 위원 그것은 각 부처마다 다 있는 것인데 소관 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지적해 버리면 그게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거지요. 그걸 소관이, 국회 소관이 어디냐가 문제입니까?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필요하느냐, 그런 판단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소위원장 문학진 자 가요, 그래.

이범관 위원님 의견 존중하고 가요.

○전문위원 허영호 예, 알겠습니다.

9번이 되겠습니다.

통일업무정보화사업입니다.

2010년 예산액은 6억 9500만 원으로서 2009년에 비해서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홈페이지 업데이트의 빈도수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으로 합리적인 비용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상찬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저희들은 이 부분이 통일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증액이 됐으면 돼야 되는데 감액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통일부에 5개 정보화시스템이 있는데, 교류협력시스템 이것은 민원인들이 남북교류협력 승인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우리 북한자료센터 북한자료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위한 3S-Net이라 해서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남북회담의 시스템이 있고 또 통계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기본 필수적인 경비와 특히 금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각 부처가 장애인들이 정부의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두 바꿔야 됩니다. 그에 대한 최소한도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3개 교류협력시스템 그리고 자료시스템 그리고 남북회담시스템 이 세 가지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극히 최소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액

되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신낙균 위원 그런데 업데이트 하는 빈도수가 너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통일부차관 홍양호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매년 한 차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스템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5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시스템도 있고 자료시스템도 있고 시스템마다 매년 업데이트를 시켜 줘야 됩니다.

○신낙균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해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유지 보수도 해야 됩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주요 증가 사유는 장애인 접근……

○홍정욱 위원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1억 6000입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그것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된 겁니다. 원래 전년도 수준인데 장애인 차별금지 때문에……

○통일부차관 홍양호 장애인 차별금지는 법에 의해서 전 부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것에 1억 6000 들어가고 그것 이외 순증은 1억 정도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예를 들어서 성차별 문제라든지 그런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춘식 위원 홈페이지는 통일부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시지요.

갑시다.

○전문위원 허영호 10번 통일미래 비전 수립 사업입니다.

2010년 예산액은 11억 4700만 원이고 순증된 예산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단년도 일회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구상찬 위원님, 신낙균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홍정욱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 내용은 내년도에 독일 통일 20주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일입니다. 내년도에 독일 통일 20주년 계기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현재 사업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런데 미래기획위원회하고 공동으로 하는데요, 미래기획위원회 사업을 통일부가 편법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것은 아닙니다. 통일부가 하고, 가능하면 많은 부처가 함께하는 게 좋겠다 해서 미래기획위원회를 여기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기획위원회 사업이 아니고 통일부 사업입니다.

○홍정욱 위원 11억은 전액 행사비용이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11억은 행사비용입니다.

○홍정욱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 쓰고 끝나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일회성입니다.

○홍정욱 위원 그 밑에도 있는데 독일 통일 20년 계기 통일정책 수립에 이렇게 20억씩 쓰고 나면 새로운 통일정책이 나옵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지금 주독 한국대사관 대사도 계속 통일부에 전문으로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주로 한 4, 5년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자기 시점으로 볼 때는 그동안 진행형으로 통일 문제가 진행됐기 때문에 20년 계기를 시점으로 정부가 한번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독 한국대사가 직접 저희들에게 전문도 보내고,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홍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일 통일 20주년을 계기로 독일의 케이스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취지는 옳다고 봐요.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을 부르고 그렇게 이벤트를 하느라고 11억 원을 쓰면서 우리 통일정책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통일부가 금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려는 것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내적인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유사시에, 통일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통일에 대한 미래 비전 같은 것을 제시하고 협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독일 통일 20주년이라는 계기를 빌려서,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을 위한 인프라를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단년도 일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10번하고 11번하고 차이가 뭐예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10번은 행사를 하는 것이고, 11번은 연구용역하고 독일의 많은 자료들을 번역해서 우리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10번 행사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봐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행사는 내년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라든지 예컨대 과거 통일되었을 당시 독일의 주요 지도자들이라든지 주변 4강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당시의 통일미래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또 한국 정부가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시받고 또 국내적으로 많은 석학자들도 이런 기회에 같이 참여해서 통일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국내 행사가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을 다 초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내년 몇 월에 하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내년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런데 정부가 출범한 지, 반이 넘어선 이 시점에서 새롭게 통일미래의 비전을 수립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요, 집권 초라면 몰라도. 그렇다고 통일의 기본방향을 바꾼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유명인사 초청해서 하나의 행사를 위한 행사는 될 수가 있어도 정말 차제에 통일미래 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 행사로 보기에는 납득이 잘 안 가요. 거기다가 11억씩 쓴다는 것은…… 여기 독일 통일 20주년 계기로 행사 사업이 하나 또 있다고요. 이것은 정말 행사를 위한 행사 같지 실제 효율성에서 내실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소위원장 문학진 10번, 11번이 행사하고 세미나하고 이래 가지고 결과물을 책자로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11번은 독일에서 20년 동안 모으던 자료들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번역도 하고 또 그중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을 뽑아내는 사업이고요.

○신낙균 위원 그런데 그동안 꾸준히 이런 것을 했을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동안 못 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여태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한 4, 5년간은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제대로 자료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범관 위원 아니, 이것 법무부에서도 하고……

○통일부차관 홍양호 초창기에 많이 했었지요. 그러다가 최근에 주독 한국대사가 전문을 통해서 본국 정부에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을 지금쯤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러나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분량의, 통일부가 감히 소화해 내지 못할 만한 분량의 연구물이 축적되어 있어요. 이제 와서 한번 다시 해 보자 해서 똑같은 내용, 똑같은 학자들 가지고 하면서 8억 5000 쓰는 것은…… 글쎄, 연구까지는 모르겠는데 유명 인사들을 불러서 행사비용까지 11억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20억 이 부분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10번하고 11번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홍정욱 위원 전혀 다르지만 어쨌든 행사비용으로 다 쓰는 것 아니에요? 관심 일깨우려고 전 동독 총리 불러 가지고 독일 통일 20주년 맞이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지금 저희들의 구도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독일, EU 이런 나라들에서 통일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현재의 석학들을 초청하고 또 국내의 석학도 참석해서 통일 문제에 관한 대내외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마침 내년이 독일 통일 20주년……

○홍정욱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번 지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예산의 특징으로 연구용역 비용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홍보·마케팅 비용의 급격한 증가, 이 두 가지를 보거든요. 지금 매 연구 프로젝트마다 당연히 명분을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불필요한 부분도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감액이 필요해요.

○신낙균 위원 통일부가 할 수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연의 일을 별로 하지 않고 괜히 존재감 나타내기 위해서 거물 불러다가 그냥 하나의 큰 행사로서, 그러니까 매우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내실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위원님, 그러시면 행사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번은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번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내년도에 일부분 하고 그 다음 해에 할 수 있게끔, 2차 연도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11번 예산을 일부 깎고, 10번은 행사가 제대로 되도록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10번 행사를 내년 초에 며칠 동안 하는 겁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한 2박 3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픽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청비용이라든지 예산의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것 2박 3일 행사 한 번하고 끝나는 것 아녜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이것은 단년도 행사이기 때문에 이왕 하게 되면 제대로 잘해야 되고 해서 10번은 그대로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2박 3일 하는데 11억이나 들어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외국사람들을 초청하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낙균 위원 클린턴은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을 얘기하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그렇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런데 그분이 인물은 크지만 우리 통일미래에 비전을 줄 만합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하여튼 그 당시에 관계했던……

○홍정욱 위원 이것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번은 8억 4600인데 그것을 2개 연도로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절반으로 깎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내년에 가서 또 하세요.

○신낙균 위원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실이 없는, 의미가 없는 것을 통일부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11번을 2개년 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감액을 하시고요. 행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잘해야 되기 때문에 10번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11번을 반으로 하자고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11번은 반으로, 846 나누기 2 하세요.

○신낙균 위원 이런 것을 다 통일부가 직접 하면 통일연구원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통일연구원에 예산이 없습니다. 자기들 예산으로 하면 저희들은 좋은데 예산이 없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집 세를 받아서 뭘 하라 그래요. 건물만 떡 갖고 있고……

○통일부차관 홍양호 통일연구원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건물이 저희 통일부 건물입니다.

○이범관 위원 참고적인 얘기인데, 이게 항이에요 목이에요?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20년 계기 통일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이게 세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항으로 들어갑니다.

○이범관 위원 제목을 바꾸세요. 과거에 하던 것을 계속사업으로 하든지 5년 동안 하다가 그동안 놨다든지……

통일부가 이제 와서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일 통일 20주년 계기 정책수립을 계속사업으로 한다든지 제목이라도 바꾸세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서야 한다는 게 좀 우습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홍 차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정리합시다.

○이춘식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12번 가세요.

○전문위원 허영호 북한 관련 심층면접 및 설문표준기법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은 2억 원이고 순증된 예산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심층면접 조사기법에 대한 선

행연구가 다수 존재하고 별도의 설문 관련 기법 개발의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신낙균 위원님과 이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 부분은 주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해서 북한의 여러 분야의 자료들을 축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방법론이 있습니다만 탈북자라는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기법을 우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탈북자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냥 네다섯 가지 정도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예컨대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떠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면접조사기법을 하나 마련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12번은 어떻게 보면 13번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정세분석국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 또 통일부의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저는 12번은 정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정책연구개발에서 하세요. 4억 8000만 원 책정해서 아무도 안 보여 주고 국회에도 안 보여 주는 용역 연구서 자꾸 만들어 내지 마시고 그 비용 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것에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따로 하세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정세분석국장님, 조금 설명을 드리시지요.

○통일부정세분석국장 양창석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 정세 DB가 없습니다. 북한 내 사업이라든지 인물 데이터베이스가 저희 노력의 부족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개발협력을 한다든지 북한과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통일부가 아시다시피 자체 정보수집 경험이 없습니다. 요즘 제일 유용한 것은 탈북자, 방북자 그다음에 국제기구에 의한 수집인데 DB에 적합하게 넣기 위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표준기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반 면접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표준기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이것을 따로, 심층정보 수집 예산을 하면서 같이 신청했습니다.

○홍정욱 위원 12번, 13번 합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 여러 가지 디테일에서 대단히 모호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선행하는 기법 개발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DB 구축하고 비용을 나누셨는데, 저는 DB 구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표준기법 개발은 별도 항목으로 있기에는 아쉬운 항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올해 연구비용들이 많이 책정되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신낙균 위원 12번은 정말 필요 없는 항목이에요. 12번은 전체를 덜어 내도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문학진 홍 차관, 어때요? 정말 필요 없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면 전액 삭감하고 넘어가고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 사업은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을 지금 홍정욱 위원님께서 정책연구용역개발비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억 8000 중에 2억을 그렇게 사용해 버리면 2억 8000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보고드렸던 원래 하려고 하는 다양한 내용의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홍정욱 위원 정책연구개발에서 나오는 연구용역서 다 읽어 보셨습니까, 차관님?

○통일부차관 홍양호 요지는 다 읽어 봅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제가……

○홍정욱 위원 그것 국회에도 공개 안 하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열람하게만 해 주는 거지요? 일반에게 공개 안 하잖아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다 열람됩니다. 모든 부처의 용역이 행안부 시스템에 올라가면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정책연구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것은 신낙균 위원님이나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전체 개발비를 1억 올려 줘 가지고 거기서 하든지 해요. 따로 하는 것은 좀……

○신낙균 위원 항목 자체가 존재하면 오히려 우스워요. 통일부가 우습게 보입니다.

○이범관 위원 2억을 빼고 앞에 4억 8000에다 1

억만 더 붙여 주지요?

○신낙균 위원 그렇지요. 집행하는 한 부처가 설문 관련 기법을 개발한다고……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너무 덩치가 큽니다.

○통일부정세분석국장 양창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진짜 정부가 건강한 정책을 하려면 균형적으로 여러 부처가, 미국 같은 경우 16개 정보기관이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우리는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정보수집을 물론 외교부도 합니다만 통일부가 1만 7000여 명의 탈북자 또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2개는 통일부가 균형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한다라는……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이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러지 마시고 13번 DB 프로젝트랑 똑같은 것이라고 하시니까 차라리 이범관 위원님 말씀대로 DB 프로젝트에 더 얹어 주시든지 하나로 엮으시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13번을 2억 증액해서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까?

○통일부정세분석국장 양창석 묶어도 됩니다.

○홍정욱 위원 그래서 1억만 증액하는 것으로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앞에 붙이면 저희들이 사업하기 힘드니까 12번 예산을 13번으로 붙여서요.

○홍정욱 위원 1억만 하십시오.

○통일부정세분석국장 양창석 1억은 너무 부족하고 5000 정도만……

○홍정욱 위원 아껴서 쓰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잖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말씀드렸지만 탈북자 정보라고 하는 것이 현안 정보보다…… 인문지리라든가 자연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데 탈북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홍정욱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 안 계신 5명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12번을 13번으로 합쳐서 11억 4700으로 해 주시지요. 통합해서 하나의 제목으로 해서 증액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12, 13이 연결이 되고, 14도 비슷한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14는 다른 것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완전히 다른 거예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12, 13이 같은 사업인데 예산편성상 구분했습니다. 12번을 13번으로 합쳐서 하나로 해서 2억을 1억으로 깎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14번은 완전히 다른 거네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14번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12번은 지금 얘기하신 13번에다가 붙이는 것으로 하자 이거지요?

○신낙균 위원 예, 13번을 1억 증액하고 12번은 완전히 삭제하고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12번, 13번 합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호 전체적으로 1억이 깎이는 것입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렇지요. 그래서 12번이 없어지고 13번이 11억 4700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문학진 14번 가시지요.

○전문위원 허영호 북한정세지수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2010년 예산액은 18억 5000만 원이고 순증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북한정세지수 개발과 이에 따른 활용은 객관성 및 과학성, 투명성이 중요한데 이를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통일부에서 수행하기에도 전문성과 능력에서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구상찬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박상천 위원님, 박선영 위원님, 신낙균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홍정욱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 부분은 정세분석국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정세분석국장 양창석 항목별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객관성과 투명성인데 사실 북한 정보의 분석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브랜드 지수나 북한정세도 과학적으로 수치로 평가를 함으로 해서 언론 등에서 핵실험이 있다, 김정일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국민의 불안이 조성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정책판단의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객관성 문제는 사회·문화·경제·정치·외교 총 망라해서 국내 연구기관을 넣고, 또 방법론이 전문가들 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학자들, 연구기관을 총 망라해서 투입함으로 해서 객관성, 과학성을 확보하고 또 데이터 측면에서는 북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폐쇄적이기 때문에 데이터도 국내에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있는 자료들을 다 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정파적으로, 정권교체가 있더라도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북한 정세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판단을 해서 균형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이것은 국가대계적으로 해 놓으면 국제적으로도 북한정세에 대해서 권위 있는 브랜드를……

○소위원장 문학진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춘식 위원 저는 우선 통일부에서 수행하기에 전문성이나 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통일부를 너무 폄하하는 것 같고요, 의욕적으로 통일부에서 과거와 달리 뭔가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통일부가 발전하고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내고 해야 통일부 권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통일부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의문은 갑니다마는 모험이라든가 창의성이 있어야 업무 발전이 된다고 보고 해 주는 것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낙균 위원 지수화하면 일정한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부정적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과 달리 통일부가 할 만한 사업이냐, 이게 타당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을 괜히 자극할 수도 있고 또 그 수치, 그 지수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생기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통일부가 하는 것은 정말 통일사업을 일차적으로 하는 부서로서 부적합한 것 아닌가,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홍정욱 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의 순수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이러한 과학화하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는데 이것은 원초적으로 잘못된 안이라는 감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지금 객관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참여정부 때도 평화지수가 있었습니다. 평화지수 용역이 나갔었고 그때 햇볕정책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지수였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파적인 이해를 떠나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액수를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해 못 하시는 게 예산 규모를 많이 늘린다고 이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정책 담당부서인 통일부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는 겁니다. 객관성이 있어도 그 객관성을 믿어 줄 사람이 없어요.

○신낙균 위원 신뢰가 문제가 돼요.

○홍정욱 위원 지금 삼성경제연구소든 이런 데서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안보지수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불충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민간 기관에다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더 줘서 독립적인 기관 한 두세 군데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통일부가 한 군데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것을 개발한다는 것, 정권이 바뀌면 이 지수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바뀌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객관성과 효용성에서 지나치게 큰 액수가 책정되었다라는 그런 감을, 지금 자그마치 저희 외통위의 30%가 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숙지하셔야 될 겁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부분이 있고 정부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또 북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해야 될 기본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제대로 잘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삼성경제연구소는 안보지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 지향적인 지수입니다.

여기에서는 특정한 안보지수라든지 또 과거에 말씀하신 평화지수 그런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모든 전 분야를 총괄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할 겁니다. 외통위에다 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정보역량이 높아지고 또 제대로 된 객관성 있는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민간에 맡기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오히려 이런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정보역량도 높이고……

○홍정욱 위원 정보역량 높이는 것은 13번에서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한다고 했는데, 지수의 핵심이 뭡니까? 지수의 핵심은 그 지수를 선정하는 기관의 중립성입니다. 부패청렴도든 무슨 여성인권지수든 다 우리가 그 선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 지수를 믿는 거거든요.

통일부가 정파의 그 이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요. 통일부가 항상 공격의 대상이고 통일부가 옹호의 대상이고, 통일부 자체의 중립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통일부가 내는 지수가 어떻게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래서 지수를 통일부 직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중립적인 사람들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통일부 직원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홍정욱 위원 아니, 통일부가 그걸 자체적으로 거의 100% 스폰서가 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홍정욱 위원 마찬가지지요, 밖에서 보기에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북한 정세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어떠냐?'. 그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의무를 가진 기관은 통일부입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하는 건 안 맞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일부는 정부의 공식기관으로서 국민이 요구할 때, 언론이 요구할 때 북한 정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매일 브리핑을 해 봤지만 요구를 하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이럽디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통일부, 정부의 입장은.

○홍정욱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국회에 오셔서 북한 정세를 좀 제대로 말씀하세요, 만날 '검토하겠다, 참고하겠다'만 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공개도 안 하면서 지수개발은 왜 합니까?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세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도 보고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정세지수에 관한 문제는 통일부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논리보다는 통일부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다, 외부의 요청이 많다 하는 것만……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래서 저희들이 정세지수를 하면서 4개 전문가들을 균형 있게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좀 객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통일부가 제대로 일을 한번 하고자 하는 일인데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거 액수가 좀 과다한 것 같네.

○홍정욱 위원 이범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범관 위원 저도 얘기해야 됩니까?

○홍정욱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범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현재 실정에 따라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통일 문제를 여러 분야에서 분석·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구에 맡겨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정부 산하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통일부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편파적일 우려가 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 같아요. 저도 많은 경험을 해 봤지만 민간 기관이 사실 자료가 제대로 없어 가지고 일방적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도.

경제연구소가 삼성도 있고 대우도 있고 다 있는데 정부연구소하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 데서는 그런 대로 그것이 서로 비교가 되고…… 뭔가는 누가 해야 됩니다.

통일부가 지금 전문성, 능력 없는 거 맞아요. 누가 시작을 해서 장기적인 통일정책을 정부가 바뀌든 안 바뀌든 그때에 따라서 자꾸 비판을 해 주면 그게 제자리를 잡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봐 가지고 믿고 맡겨 주고 잘못하면 그걸 감시하자고요.

'이런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하지 말라' 이러면 우리가 아무도…… 국가적인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지수를 개발해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 자료를 민간단체에 줄 수도 없고. 민간단체가 갖고 있다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 들어가서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민간단체가 하는데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목표 가지고 그냥 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이건 상당히

예민한 자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도 누군가 해야 된다면 그나마—국정원이 하면 더 못 믿을 거예요—통일부가, 통일부라는 정책부서가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고 거기서 시작한 것이 잘못된 게 있으면 국회에서도 이걸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이게 발표되든지 어떤 전문기관에 알려지면 '이거 엉터리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일부 욕먹어야지요. 그건 혼나야지요. 그렇게 해서 그걸 고쳐 나가면서 사업은 한번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거 18억 5000 내역 좀 봅시다, 내역.

○통일부차관 홍양호 내역을 정세분석국장이 설명해 줘요.

○통일부정세분석국장 양창석 18억 5000 중에 개발연구용역으로 주는 부분이 14억이고 북한통계자료 구입이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자료 구입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세계무역통계나 유엔 국제기구가 갖고…… UNFPA가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인구조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400만 불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좀 지원을 해서 국제기구가 북한하고 협력해서 자료를 갖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14억 개발연구용역 속에는 이와, 아까 홍정욱 위원님께서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유사지수 사례를 하는 게 5000만 원이고 이거 개발방법 1억 원, 그리고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4개 분야별로 각 2.3억씩입니다. 연구기관이 총망라해서 거기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3억씩 해서 4개 분야에 9억 3000만 원…… 나머지는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효용성이나 객관성 이 측정치를 한번 점검해 보는데 1억 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수를 앞으로 한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는 측정방법론에 2억이 있고, 이쪽에는 물론 우리가 입력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억 용역에 통계자료를 더해서 합계 18억 5000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것을 공개할 건가요?

○통일부정세분석국장 양창석 지금 전문가 자문을 받은 바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게 좋고, 민감한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서 민간 연구기관이 발표하는 식으로, 그런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는 반드시 보고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공개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지수는 얼마마다 한 번씩……

○통일부정세분석국장 양창석 지금은 1년 단위로 예산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내년에는 모델 개발하고 1차연도 지수 산출을 하고 그 이후에 6개월·3개월 이것은, 그렇게 한번 모델을 개발하면 산출하는 데는 큰 예산이 안 드니까 그것은 신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한번 해보도록 북돋아 주시지요, 위원장님이.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통일부 정세분석국의 1년 동안 정세분석 결과가 그대로 대외 발표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서 매년 식량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금년 식량 작황이 200만t 모자란다, 남는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한 사업이다, 정세지수 하나 그거 발표하는 것으로 보시지 말고 정세분석국에서 1년 동안 쭉 연구한 결과가 하나의 지수로써 연말에 아니면 연초에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위원장님,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 주십시오.

○소위원장 문학진 홍정욱 위원 생각은 어때요?

○홍정욱 위원 위원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이 18억은 우리 통일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정말 큰 액수입니다. 정말 큰 액수인데, 제가 보기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지수개발을 위해서 18억을 쓴다는 것은 아직까지 무리인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수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난 2년 보셨겠지만 북한과 우리 정세는 항상 돌발적인 상황에서 급변하는, 급변하는 정세입니다. 여성인권이나 부패청렴과 같이 우리가 두고두고 1년에 한 번씩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반대의견을 밝히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십시오.

○소위원장 문학진 잠깐 미뤄 놓지요. 판단을

잠깐 미룹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범관 위원 죄송하지만 잠깐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까지 해서 미안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말씀하세요.

○이범관 위원 우리 각 위원들이 지적할 부분을 해 갖고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놓고, 이거 몇 억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따져서……

○소위원장 문학진 거의 돼 가는데 뭐……

○이범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 부분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각 위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해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이렇게 가면 한 시간 이상 더 갈 텐데……

○소위원장 문학진 이렇게 가는 게 빨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범관 위원 각 위원들이 내 의견은 이런 게 있다, 각자 갖고 있는 게 몇 개 없을 거 아니에요?

○홍정욱 위원 제가 말한 것은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은 제가 인지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범관 위원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홍 위원님이 사전에 준비를 해 오셔서 해 주시든지……

○소위원장 문학진 이범관 위원님, 이건 거의 다 돼 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범관 위원 빨리빨리 합시다.

○소위원장 문학진 조금만 참아 주세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14번은 잠깐만 보류하고, 15번 갑시다.

○전문위원 허영호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번, 이산가족 초청행사는 9800만 원인데 신규입니다. 이산가족 초청행사 예산을 갖다가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의견은 신낙균 위원님이 주셨고 또 이걸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구상찬 위원님과 남경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신낙균 위원 저는 해도 되는데, 전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아닌데 이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상봉 아니면 최소한도 화상상봉이라도 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들 불러다가 위로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면으로 만나게 해 주는데 좀더 적극성을 띠는 게 어떤가?

○소위원장 문학진 그거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신낙균 위원 예.

○전문위원 허영호 예,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자, 넘어갑시다.

16번.

○전문위원 허영호 16번, 분단현장 및 남북관계 사진전과 청소년평화통일대행진 사업입니다.

2010년 예산은 6억 600만 원이고 전액 순증된 예산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이 사업을 국가보훈처나 국방부로 이관해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신낙균 위원님과 이미경 위원님이 주셨고 그와 반대로 오히려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진영 위원님께서 주셨고 윤상현 위원님께서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사진전을 포함해서 전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춘식 위원 저는 가 봐야 돼요.

14번 지수 찬성이고, 한 표 던지고 나는 갑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알겠습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 부분은 국가보훈처가 총괄을 하면서 많은 부처가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정부의 업무추진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통일부가 하도록 하고 또 다른 부처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부처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부처 간에 업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위한 거기에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향이 아니고, 통일부가 하는 일들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컨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부가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또 사진전도 좀더 포함시켜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런데 이게 뭐야? 국가보훈처, 국방부에서도 이 비슷한 것을 하게 되나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국가보훈처가 정부 내에서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많은 참여 부처들이 자기 분야의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통일부가 하고 다른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부처가 하고 그렇게 정부 내에 업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거지요. 보훈처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나, 통일부가 따로 하는 게, 그게 그런 뜻이란 말이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보훈처에서 총괄은 하고 해당 부처에서 자기 분야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청소년 평화통일 대행진은 뭐예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것은 청소년들이 분단지역을, 예컨대 서해에서 동해까지 걷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자기들의 통일 미래에 대한 염원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목적은 통일에 대한 미래 비전 같은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갖게 하는 그런 청소년 통일교육 사업입니다.

○신낙균 위원 그런데 참전국 교포 학생을 3일간 초청해서, 이것은 비용을 드리지만……

○통일부차관 홍양호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 청소년들도 같이 초청하고요. 국내 사람도 함께……

○신낙균 위원 실효성 있겠나 하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게 한 번 하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내년 한 번으로 끝입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6·25 60주년이기 때문에……

○통일부차관 홍양호 정부 측 내년 한 번 행사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6·15 10주년 기념으로 하는 거예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6·25 60주년……

○소위원장 문학진 그렇지. 6·15를 여기서 할 리가 없지. 6·25……

○통일부차관 홍양호 6·15는 뒤편에 나옵니다.

○홍정욱 위원 저도 아까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범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공감하는 형태의 입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좋아요. 빨리빨리 하자고.

○이범관 위원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합시다.

○홍정욱 위원 필요한 것만 지적하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문학진 좋아요.

이렇게 죽죽 가자고, 뭐 어떻게 하겠어.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대충 봐 가지고 이쪽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의견 있는 것만……

○소위원장 문학진 일단 넘어가 봅시다.

17번 갑시다.

○전문위원 허영호 16번은 원안대로.

○소위원장 문학진 예.

17번 안 했잖아?

○전문위원 허영호 16번이 끝입니다.

○홍정욱 위원 증액 부분에서 문제 있는 것 정하지요.

저는 1번, 7번, 12번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저도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문학진 예, 말씀하세요.

○이범관 위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다른 건 이의 없고요, 제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국제 통일기반 조성에서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다원화시켜서 민간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민간기구인 평화문제연구소 같은 데다 세미나 비용을 한 5000만 원만 증액시켜 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나라당의 김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천만이산가족협의회 지원 예산이 5000만 원인데 김충환 위원님 말씀이 이것은 1억 정도로 증액을 해 줘야 된다, 제대로 해 주려면.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6번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여기서 북한이탈주민 보철치료 지원을 해서, 의원님들도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해서 제가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2억 3000을 증액해서 보철 하나 하는 것을 둘 하도록 이런 얘기 같던데……

○통일부차관 홍양호 보통 예산이 없어 한쪽만 하는데 제대로……

○이범관 위원 그렇게 좀……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요.

또 여기 신규사업으로 안 들어가 있는데 하나원 의료장비 구입 3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원 의료장비 구입 새로운

항목을 넣어서……

○전문위원 허영호 의료장비가 6번에 해당이 안 됩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6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허영호 6번 금액을 3억……

○소위원장 문학진 6번에다 주면 되지.

○전문위원 허영호 3억 5000만 원.

○이범관 위원 그다음에 기금의 개성공단 정배수장 운영예산이 10억 3000인데 수입이 4억 6000밖에 안 돼서 5억 4000의 적자를 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5억 4000을 더 보태서 55억 4000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화협이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8000만 원만 늘려 달라고 했나?

○통일부차관 홍양호 민화협이요? 여기는 없는데……

○이범관 위원 여기는 없는데……

○홍정욱 위원 2배라고 그러셨는데……

○이범관 위원 2배요?

○홍정욱 위원 3억 7000인데 6억 정도로 해 달라고……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지금 3억이지요.

○이범관 위원 홍정욱 위원님은 의견이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요?

○홍정욱 위원 저도 그 얘기 하려고요. 그것 제가 얘기할게요.

○이범관 위원 그러면 홍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으로 같이……

제 의견은 그렇고, 다른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호 민화협이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범관 위원 6억이라고 그러시는데.

○홍정욱 위원 지금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서 6·15행사도 거기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6·15라기보다는 남북합의 전체를 한번 짚어 보는……

○홍정욱 위원 아니, 6·15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목적으로 돌려서라도……

○소위원장 문학진 민화협 6억으로 하자는 거 아니야?

○전문위원 허영호 6억으로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지금 현재 3억에서……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민화협을 6억으로……

○전문위원 허영호 3억 증액해서 6억.

○소위원장 문학진 그다음에 홍정욱 위원.

○홍정욱 위원 저는 일단 1번 국제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것이 대체로 홍보활동이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것은 홍보활동이라기보다는 정책 설명하고 서로 전문가들하고 의견 교환하는 겁니다.

○홍정욱 위원 지금 이범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예산을 삭감하고 5000만 원 정도를 민간에 증원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증액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범관 위원 이 중에서……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5000 증액 얘기했습니다.

○홍정욱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화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7번 남북회담 행사는 상징적으로라도 다시 복구해서 5억을 증액해서 15억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당국 차원의 지원, 이것 참 거론하기에는 액수가 큽니다만 어쨌든 인도적 지원 액수가 실제로 불용액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삭감되는 부분은 모양이 매우 안 좋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안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남북 정상회담 비용과 마찬가지로, 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호 그러면 1021억 5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렇지요. 1021억을 증액하는 거지요. 남북협력기금……

○전문위원 허영호 10쪽 1번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10쪽 1번에 대해서 홍 위원님 지금 뭐라고 그런 거예요?

○홍정욱 위원 1021억을 증액해서 인도적 지원 액수나 교류 액수를 삭감하는 모양을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액수를 동일하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이지요?

○홍정욱 위원 액수는 동일하게 가서……

○소위원장 문학진 2009년 예산 수준으로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홍정욱 위원 예, 어차피 다 쓰지 못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렇게 하니까 빠르긴 빠르네.

신낙균 위원님.

○신낙균 위원 지금 따라 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1번은 저는 제도개선만 필요한 것 아닌가 했는데, 그렇고요.

청소년학교 지원, 그래서 대안학교 늘리는 것 바람직하고요.

5번, 납북 피해자 지원, 이것도 필요한 겁니까?

○전문위원 허영호 박선영 위원님께서 위령제 및 추모공원 조성을 앞에 넣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런데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현행 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 그러는데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위령제는 특정한 장소가 없더라도 할 수 있어서 그건 예산만 증액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추모공원은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또 납북자 가족들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여기에 또 무슨 납골당이나 묘지까지 하면 앞으로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바로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위령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거니까, 1년에 한 번 하니까, 이런 예산만 증액시켜 주시면……

○신낙균 위원 추모공원 조성은 빼고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그것은 증액 좀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전문위원 허영호 금액을?

○통일부차관 홍양호 금액은 한 2000만 원만 증액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리고 남북회담 행사 하지도 않는데 증액을 왜 해야 되는지? 남북회담 행사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증액하지 말고 그냥 현행대로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금년 예산대로 하는 것이……

○신낙균 위원 그대로 놔두자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홍정욱 위원님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신낙균 위원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15억 금년 예산 그대로……

○이범관 위원 아니, 지금 신 위원님은 10억으로 놔 두자는 말씀 아니야?

○신낙균 위원 예, 현재 있는 대로 그냥……

○홍정욱 위원 이게 어차피 불용액수가 많은데 남북회담 행사의 예산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열의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상징성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낙균 위원 상징성이 있다고요? 저는 하지 않으니까 실효성을, 뭐 그 정도로……

그리고 다른 것은 다 괜찮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센터 운영, 증액은 하지만 개수는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개수만 많이 늘리지는 말자 그런……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신낙균 위원 단계적으로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저는 그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천식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1000 정도가 관리비……

○소위원장 문학진 뭐를 1억 1000?

○전문위원 허영호 9페이지 10번,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에 운영비 1억……

○통일부차관 홍양호 여기 저희들 총괄 예산이 없습니다. 총괄해서 이끌어가는 예산이 없어서 1억 1400 정도만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

○소위원장 문학진 지금 42억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거기에서 총괄하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총괄하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1억 1000만 원만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1억 1000?

○통일부차관 홍양호 1억 14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6·15 10주년 행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이것은 아까 민화협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홍정욱 위원 민화협 예산 3억 늘려서……
○소위원장 문학진 민화협 예산으로……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그리고 9번 남북회담본부 청사 이게 C등급 받아 가지고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필요하시면 증액을……
○전문위원 허영호 9번 남북회담본부 청사 개·보수 그것 말씀이시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예.
○신낙균 위원 13번은 제도개선.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홍정욱 위원 9번은 얼마 증액해 달라는 겁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16.6억 원입니다. 지금 청사가 불안전 판정을 받아 가지고 빨리 개·보수해야 되는데……
○홍정욱 위원 16억?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16억 6000만 원입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보수하고 이렇게……
○소위원장 문학진 이게 어디 있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9번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아니, 그 본부가 어디 있냐고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삼청동에 있는 겁니다. 삼청동하고 판문점 부근에 있는 전방사무소 두 군데를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지금 서로 얘기한 것 중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가 됐지요?
○전문위원 허영호 예.
○소위원장 문학진 일단 됐고, 아까 우리 결정 못 했던 것 14번……
○전문위원 허영호 위원장님,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만 의견을 말씀……
○소위원장 문학진 뭐지요? 얘기해 보세요.
○전문위원 허영호 7쪽, 2번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신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부분인데요.
○이범관 위원 의견 제시 없으면 그대로 하자는 거지.
○전문위원 허영호 그런데 금액이 이게 얼마 정도 증액이……
○홍정욱 위원 의견 제시 없었던 것은 현상 유지입니다.
○이범관 위원 현상 유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뭘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려고 빨리 하자고 그러는 건데.
○전문위원 허영호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오케이.
아까 우리 미뤄 놓은 14번 결정합시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위원장님, 정부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예.
○통일부차관 홍양호 8번에 통일체험전시관 타당성조사, 내년도 예산에 순증되어 있는 것을……
○소위원장 문학진 4200만 원?
○통일부차관 홍양호 현재 그것밖에 없는데 그 예산을 한 19억 정도 증액시켜 주시면……
○소위원장 문학진 얼마?
○통일부차관 홍양호 19억 정도요. 내년도에……
○소위원장 문학진 지금 4200만 원으로 와 있는데?
○통일부차관 홍양호 지금 지방의 통일관들이 너무 낙후화돼 있어 가지고 그것도 좀 지원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당장 내년에 하는 것은 아니고 2011년부터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위원장 문학진 아니, 지금 이게 타당성조사잖아요, 타당성조사. 그런데 무슨 19억이야?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그것을 기본설계하고 개념 정립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5개 권역으로 해야 됩니다. 1개당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지역에 있는 통일관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4억 정도 증액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19억 9300만 원 증액해 주시면……
○신낙균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소위원장 문학진 그렇게 해 가지고 예결위에 보내 봐야 안 될걸?
○통일부차관 홍양호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통일체험전시관?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신낙균 위원 설계비라면 필요는 하겠는데……
○전문위원 허영호 19억 9300만 원이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19억 930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에서 대학생들 통일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예, 이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것 좀 증액을 시켜 주십시오.

○신낙균 위원 어디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지원.

○소위원장 문학진 전국 몇 개 대학이라고 그러더라?

○통일교육원장 홍재형 80개 대학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게 전에 지원이 나가다가 지금 끊긴 상태라면서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끊겨 버렸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왜 끊겼지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한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자는 그런 입장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보조금 지원을 끊는 그 와중에 다 끊겨 버렸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래요. 이것은 해 줘요.

○소위원장 문학진 해 줍시다.

14번 결정합시다.

○홍정욱 위원 그런데 이 북한정세지수 18억 원 하고 통일체험전시관 타당성조사 19억 원 이것은 전체 예산의 틀을 넘어가는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자 하고 이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위원님, 한번만 좀 밀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제가 둘 중에서 하나는 밀어드릴게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둘 다 좀 밀어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해서……

두 가지 좀 밀어 주십시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타당성이 아니라 지금 정세지수.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지수도 좀 밀어 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것 깎으면 안 되겠어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그대로 해 주십시오.

○이범관 위원 예결위에 가서 좀 깎이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문학진 모래내시장은 아니지만 깎으면 안 되겠나? 좀 많아 보여, 18억.

○통일부차관 홍양호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갑시다.

정리하세요.

○전문위원 허영호 그러면 유인물을 만들면 시간이 걸리니까 구두로 그냥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예, 그러세요.

○전문위원 허영호 그러면 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 1번 통일정책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은 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2번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연구센터 설립도 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고, 3번 하나원 청사관리 외부위탁은 제도개선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4번 개성공단 법제구축은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5번 개성공단 RFID 시스템 운영은 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낙균 위원 원안은 하지 마시지요.

○전문위원 허영호 예, 알겠습니다.

7번 정책연구개발은 제도개선인데 선정된 과제 결과하고 동일하게 연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을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번 독일통일 20주년 계기 통일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사업은 4억 23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계속사업입니다.

○전문위원 허영호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12번 북한 관련 심층면접 및 설문표 준기법 개발은 전액 삭감을 하고 이것을 13번 사업에 붙여서 탈북자·방북자·국제기구 등 심층정보 수집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해서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다음 7쪽 1번 국제통일기반 조성 5000만 원 증액하기로 하셨습니다.

○통일부차관 홍양호 평화문제연구소에 지원하는 것으로요.

○전문위원 허영호 예, 그다음 8쪽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지원에 1억 원 증액하기로 하셨습니다.

5번 납북피해자 지원 2000만 원 증액하기로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것 2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20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 허영호 예, 위령제 하는 것입니다.

다음 6번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원 사업은 보철 치료로 2억 3000만 원, 그다음 의료장비 3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액 5억 8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7번 남북회담행사는 5억 원을 증액하도록 돼 있습니다.

8번 통일체험전시관 타당성조사 사업은 19억 9300만 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9번 남북회담본부 청사 개·보수 사업은 16억 6000만 원 증액하도록 돼 있습니다.

10번 북한이탈주민지역 적응센터 운영에 1억 1400만 원 증액하기로 하셨습니다.

12번 6·15선언 10주년 기념행사 이것은 민화협에 주는 것으로 해서 3억 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13번 성인지 관련 예산은 제도 개선이고요.

그다음 남북협력기금으로 가겠습니다.

1번 당국차원의 지원에서 1021억 5700만 원 증액하기로 하셨습니다.

4번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에서 5억 4000만 원 증액하시는 것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전국대학통일연구소협의회에 1억 원 지원하는 것으로……

○통일교육원장 홍재형 그것은 6번에 학교통일교육 강화란에 증액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허영호 예, 4쪽 6번에서 1억 원 더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22억에서 23억으로.

○통일교육원장 홍재형 아니, 25억에서 26억입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예, 25에서 26억.

○전문위원 허영호 그리고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국차원의 지원에서 1000억 원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에서 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경우에 이렇게 지출을 늘리면 수입도 같이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리는 방법이 여유자금 운용에서 항목을 변경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증액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공자기금 예수금에서 증액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금액이 1000억 원도 넘기 때문에 여유자금 운용에서 이렇게 다시 항목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증액을 해서 기금에다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지금 3500억 전입하게 되면 4500억이 돼야 됩니다.

○전문위원 허영호 그런 경우에 3500억 출연금으로 증액한 만큼……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정리 잘 하시고.

그러면 전문위원 정리가 끝났으므로 헌법 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된 내용 중 증액된 항목에 대해서 통일부는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차관 홍양호 예.

○소위원장 문학진 통일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심의하여 조정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일부차관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대로 민주평통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문학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님.

○신낙균 위원 먼저 통일부 내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 비용을 신설해 주시라는 겁니다. 원래 행안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소속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이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북한이탈주민 담당 업무를 통일부에서 편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이것을 간과하고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예산에 기존 행안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했던 소요예산 3억 6000만 원을 신설해 주실 것을 동의로 제청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의견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낙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리해서 포함시켜 주십시오.

○전문위원 허영호 예,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렇게 하시고요.

계속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주평통에서는 김대식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심사 방법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개괄적으로 핵심만 죽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호 예, 횡으로 된 평통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1번 간부위원활동 지원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감액하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해외지역(출범)회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국내초청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도개선도 고려하라는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다음 자문위원일반관리 특활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통 수석부의장 특수활동비를 절반인 4300만 원을 삭감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번 지역협의회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라는 의견, 감액하라는 의견, 또 제도개선하라는 위원님들의 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번 통일활동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 일반사업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감액하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6번 통일시대 발간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김대식 처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간부활동 지원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28년 동안 이것을 관행적으로 해 와서 뭔가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문학진 위원장께서도 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윤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개정할 때까지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만큼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포괄적으로 죽 얘기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리고 신낙균 위원님과 구상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번 해외지역(출범)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인 대통령 초청으로 국내에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외 자문위원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 개최를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또 임기 중 국내 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을 격려하고 또 대통령께서 한번 격려하는 뜻에서 서로 공감대와 이해 확산 제고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28년 동안 꾸준하게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이 10억 늘어난 부분이 올해는 개최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올해는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자문위원 일반관리 활동비는 사실은 수석부의장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분은 또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의장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수석부의장을 하기 때문에 나누다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절대적으

로 부족한데 이 부분이 한 4000여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좀 원안대로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 활동 부분하고 내년도 예산에 했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지난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 45억에서 55억 사이에 지원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율로 봐서는 이번에 증액이지만 그것을 포함한다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일부하고 민주평통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민주평통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해 왔던 작업이고 통일부가 요즘에 이것에 어떻게 보면 좀 뛰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중복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주평통은 민간으로서 활동 범위에, 그 활동자문위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통일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성격상 다릅니다.

다만 평통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사 이런 부분의 예산은 통일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조직면에서는 민주평통이 여기에 협력을 해서 같이한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통일시대 발간, 이것은 기관지로 월 한 번씩 발행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충분하게 앞으로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철저하고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이범관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이범관 위원 민주평통 의견하고 같고요. 다만 통일시대 발간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지적한 대로 편파적이고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신낙균 위원님.

○신낙균 위원 1번, 간부위원 활동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지역회의는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시민권자가 80%나 임명된다는데 그것에 대한 정리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이 부분은 지금 민주평통법에 해외자문위원은 재외동포 대표급 인사로 구성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민권자가 아니고 재외국민만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동포사회에 굉장한 잡음이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분열을 초래할 수 있고 동포사회의 통일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밖에 없다, 물론 여기에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한 분은 민주평통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또 참여하지 못하고 떨어진 분들은 좀 불만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리고 80%나 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안 그래도 동포사회의 큰 갈등 요인이기 때문에 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래서 오히려 80%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정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오히려 더 중립적인, 이분들이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 오히려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렇다면 평통자문회의 존재부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3번도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에 4번은 좀 사소하지만 청년활동 통일골든벨사업 이런 것은 민주평통 목적하고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으로 채택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은 평통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협의회 활동 중에 청년활동 통일골든벨사업이 있어요.

○소위원장 문학진 그게 뭐예요? 설명 좀 해 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청년위의 활동사업 중에 통일골든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민주평통에서 지원한 금액은 아주 약소하고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인 회비를 걷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통일 관련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과 남북 문제 등을 퀴즈를 통해서 풀어나가서 현장감 있고 흥미를 가미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아주 적정한 사업이

라고 보고 있고요.

○신낙균 위원 액수도 작아요. 그래도 그것 좀 액수 고하간에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이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래서 이게 각 기업별로 이렇게 나누다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사업에 걸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래도 그것은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를 미리 하셨는데 통일담론 형성사업하고, 통일부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 문제는 통일부하고 타협하셔서 중복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신낙균 위원 그리고 하여튼 정리가 필요한 것이 통일활동 일반사업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어요. 지방자치단체장 몫으로 평통자문위원 추천하는데 지자체가 지원하지는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서로 모순이라고 봐지는 거지요.

그리고 통일시대 발간 아까 정리말씀 하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생략하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홍정욱 위원.

○홍정욱 위원 저는 다른 의견은 같고요.

5번 통일활동 일반사업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통일부가 아무리 뛰어들었다고 해도 통일부가 주무부서고 통일부가 통일활동 일반사업에 대해서 홍보사업이나 교육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성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에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 심의 때에는 총체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지요.

지자체에서 지역협의회 활동 지원이 지금 다 끊겼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끊긴 것은 아닌데 지금 사실상 참여정부 때는 거의 끊겼다가 풀어졌다가, 그것은 지자체 단체장님들의 거기에 좀……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인 게 아니라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단체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지금 다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이범관 위원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대통령 헌법기관을 돈도 없는 지자체에다 왜 줬냐고 계속 나한테……

○소위원장 문학진 그래서 한푼도 지원을 안 해……

○이범관 위원 안 해 주겠다 이거야.

○소위원장 문학진 그런데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런 데가 많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게 대다수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대다수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리고 지자체 얘기가 맞더라고. 헌법기관이면 국가에서 예산 지원 받지 왜 지자체에 떠넘기느냐 이거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국고로 조금 전환을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본다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렇게 별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전에 상임위에서 제가 얘기했던…… 아까 내가 통일부한테도 얘기했는데 문제가 되었던 책자, 그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소위원장 문학진 그것은 통일부에서도 그런 유사한 자료나 뭘 발간할 때 아까 내가 차관보고 그랬는데 반드시 감수를 해라,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나는 못 봤다…… 처장, 그랬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것은 전체적인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은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것도 발행하면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누구한테도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보탬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기택 수석부의장하고 김대식 사무처장도 강연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소위원장 문학진 지방으로도 많이 다니고 해외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접하잖아, 내가 상임위에서 지적을 한 바도 있고.

그런데 그 발언내용 중에 현 상황과 썩 잘 적절치 않아 보이는 그런 발언들이 간간히 있다는 말이야. 그것을 수석부의장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다음 우리 사무처장도 마찬가지고 잘 유념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이 정도 하고요.

전문위원 정리해 보세요.

○전문위원 허영호 2쪽의 1번 간부위원 활동지원은 제도개선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3쪽 해외지역 출범회의도 제도개선으로 말씀하셨고요.

4쪽 자문위원 일반관리, 특활비 이 부분도 역시 제도개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5쪽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부분에 있어서 신낙균 위원님께서 평통 골든벨·국내 청년위원 워크숍 예산은 삭감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금액이 383만 원입니다.

그다음 6쪽의 5번 통일활동 일반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번도 마찬가지로 통일시대발간도 제도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자, 400만 원……

위원님..

○신낙균 위원 그 사업을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범관 위원 사업내용은 빼고 예산은 그냥 주지요.

○신낙균 위원 액수를 논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 사업을……

○전문위원 허영호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신낙균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전문위원 허영호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산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그 외 제도개선은……

○소위원장 문학진 오늘 단돈 1원도 안 깎았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문학진 이것은 오로지 민주평통이 잘해서라기보다 시간 관계로……

○이범관 위원 그것을 공식 발언 하시면 저기에 올라가잖아요.

○소위원장 문학진 아니, 이범관 위원님이 중요한 회의가 이따가 또 있으시다고 해 가지고……

○이범관 위원 왜 또 저한테 핑계를……

(웃음소리)

○소위원장 문학진 그러면 2010년도 민주평통사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심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평통사무처장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문학진 신낙균 이범관 이춘식
정동영 홍정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전문위원	허영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통일부

차관	홍양호
기획조정실장	김호년
통일정책실장	김천식
정세분석국장	양창석
통일교육원장	홍재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윤미량

외교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임재홍
정책기획국장	이윤
문화외교국장	조대식
FTA정책국장	이태호
연구실장	배긍찬
조정기획관	최연호

국제경제심의관	김 경 수
아세안협력과장	정 병 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 무 처 장	김 대 식
기 획 조 정 관	김 점 준
한국국제교류재단	
기 획 이 사	김 성 엽
기 획 조 정 실 장	박 상 배
재외동포재단	
기 획 이 사	금 병 목
사 업 이 사	강 남 훈
한국국제협력단이사	장 현 식